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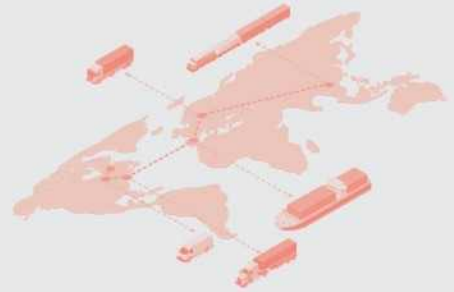


중국 AI 산업과 한국 기업의 기회

<일러두기>

보고서 내 환율은 하나은행 매매기준율 기준 2025년 상반기(2025.1.2.~2025.6.30.)
평균환율을 적용했다. <USD 1 = 1,427.15원, CNY 1 = 196.60원>

중국 AI 산업과 한국 기업의 기회



목 차

I. 중국의 AI 산업 현황	6
1. 시장규모와 전망	6
2. 정부 주도의 AI 산업 생태계	7
3. AI 산업 기초·기술단계별 시장현황	11
1) 기초단계	11
2) 기술단계	14
4. 중국의 지역별 AI 산업 발전 현황	16
1) 장강삼각주(長江三角洲)	17
2) 주강삼각주(珠江三角洲)	18
3) 징진지(京津冀)	19
II. 중국의 AI 주요 응용 분야 및 사례	20
1. AI + 제조업	20
2. AI + 자율주행	27
3. AI + 의료	32
III. 중국기업의 AI 협력수요와 우리 기업의 진출방안	40
1. 중국기업의 AI 분야별 협력 수요	40
2. 우리 기업의 진출방안	44
IV. 참고 자료	49
1. 중국의 스마트팩토리 산업체인 별 핵심 기업 리스트	49
2. 중국의 자율주행 산업체인 별 핵심 기업 리스트	50
3. 중국의 AI의료 산업체인 별 핵심 기업 리스트	51

요약

- 'Global AI Index'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에 이어 전 세계 두 번째로 AI 산업이 발달함¹⁾
 - 중국의 AI 산업은 2024년부터 2029년까지 연평균 32.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국의 AI 산업은 더욱 주목받고 있음
 - 이 보고서는 중국의 AI 산업이 어느 수준까지 발전했는지, 어떤 전략과 정책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는지 등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 기업이 협력할 만한 분야와 진출 방안을 제시함
- 중국의 AI 산업의 특징은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며, 데이터자원과 응용시장이 방대하다는 점임
 - 나아가, 기초연구보다 산업 응용에 집중하고 인재 육성 및 산학연 협력을 통해 시장을 확대함
- 중국 AI 산업은 중앙정부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지방정부가 응용 사례를 창출하는 방식임
 - 지역적으로 보면, 장강삼각주(長江三角洲)는 상하이가 기업 및 인재 육성을 중심으로 주도하고 장쑤성과 저장성이 협력하는 형태임
 - 주강삼각주(珠江三角洲)는 선전과 광저우가 IT·전기전자·로봇·자동차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AI 응용산업에 주력함
 - 징진지(京津冀)는 수도 베이징이 AI 산업 핵심 정책을 수립하고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하는 방식임
- 중국은 AI 산업의 기초단계에서 국산화 중심의 AI반도체칩, 스마트 센서, 클라우드 컴퓨팅 등 AI가 작동하기 위한 기초단계 인프라를 확보하고 개방형 생태계 구축하는데 집중함

1) 영국 언론사 Tortoise Media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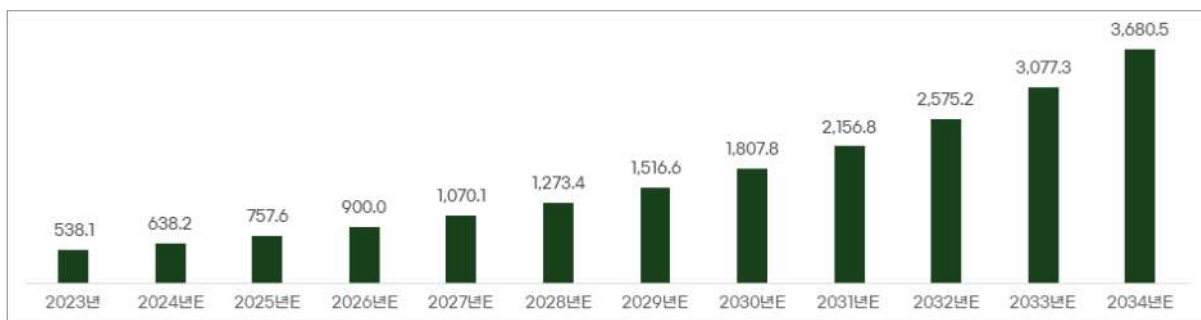
- 기술단계에서는 국산화 중심의 수직계열화 전략을 앞세워 ‘칩 → 프레임워크 → 모델 → 플랫폼’ 내재화에 집중하고 있으나 기술 완성도와 범용성 측면에서는 글로벌 수준에 미치지 못함
- 보고서에서는 **응용단계의 경우** 우리 기업과 협력 가능성이 높은 제조 분야와 중국이 우위를 보이는 자율주행과 의료분야를 중심으로 분석함
 - **제조 분야**에서 중국은 전통 제조 대기업과 빅테크 기업 간 협업을 통해 스마트공장이 빠르게 구축하고 있으나, 핵심 알고리즘이나 정밀 장비 기술력은 여전히 한계가 있음
 - **자율주행 분야**에서 중국은 빅테크 주도의 생태계 구축과 도심 실증을 통해 기술이 빠르게 상용화되고 있으나 핵심 AI칩 및 센서 등에 대한 수입 의존도는 여전히 높음
 - **AI 의료 분야**에서 중국은 세계 최대 의료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드웨어 기반의 AI 의료기기 개발이 활발하나, 데이터 표준화와 고급 기술 분야에서 여전히 격차가 존재함
- 현지 AI 관련 기업과의 인터뷰를 통해 비전AI, 센서, 로봇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을 발굴함
 - 당장의 수입 수요는 찾기 어려울 수 있으나 3D 스캐너 AI칩, 라이다 AI 솔루션, 로봇 조정밀 부품 등에 대한 한국기업과의 장기적인 협력 수요를 기대해 볼만함
- 우리 기업은 중국의 AI시장에서 제조분야는 EPC 또는 SI(시스템 통합) 기업을, 의료분야는 AI 의료 플랫폼 혹은 의료기기 제조기업을, 자율주행 관련 기업은 완성차 제조기업 혹은 자율주행 솔루션 기업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바이어 접촉은 KOTRA 무역관이나 산업별 현지 유망 전시회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음
 - 특히 산업별 협회를 통해 현지 협력 수요를 적극 발굴하는 것이 필요

I. 중국의 AI 산업 현황

1. 시장 규모와 전망

- 2024년 전 세계 AI 산업 규모는 전년대비 18.6% 늘어난 6,382억 3천만 달러로 추정²⁾
 - 2023년 전 세계 AI 산업 규모는 5,381억 3천만 달러를 돌파
 - 글로벌 AI 산업은 2027년 1조 달러를, 2031년에는 2조 달러를, 2033년에는 3조 달러를 돌파할 전망
 - 2024년에서 2034년까지 10년간 전 세계 AI 산업 규모의 연평균 성장률은 19.1%로 예상

글로벌 AI 산업 시장규모 추이와 전망(2023~2034년E)



자료: Precedence Resea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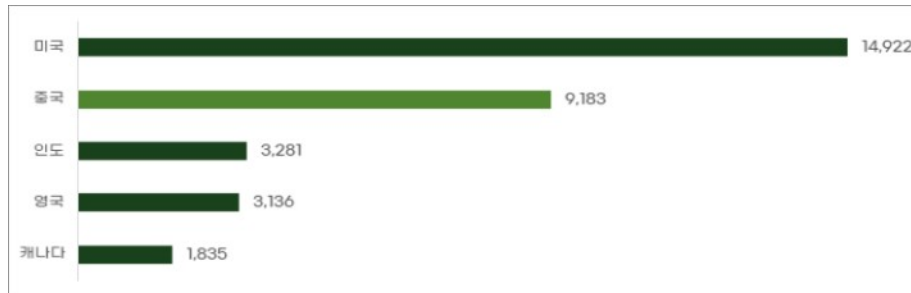
- 2023년 말 중국의 AI 관련 핵심 기업은 9,183개 사로 미국(14,922개)에 이어 세계 2위³⁾
 - 중국의 AI기업 수는 미국과 다소 격차가 있으나 3위 인도(3,281개), 4위 영국(3,136개), 5위 캐나다(1,835개)에 비해 월등히 많음
 - 2023년 말 기준 중국의 AI 분야 고급 연구 인력은 1,014명으로 전 세계 AI 분야 고급 연구인력수의 11.1% 차지
 - 가장 많은 AI 분야 고급 연구 인력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으로 중국의 3배이며 전 세계의 35.3% 차지
 - 다음으로 영국(10.6%), 독일(6.3%), 캐나다(5.1%) 등이 많은 고급 연구 인력을 육성 중

2)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Precedence Research

3) 선전시인공지능산업협회

전 세계 주요 국가 AI기업 수 순위(2023년 말 기준)

단위: 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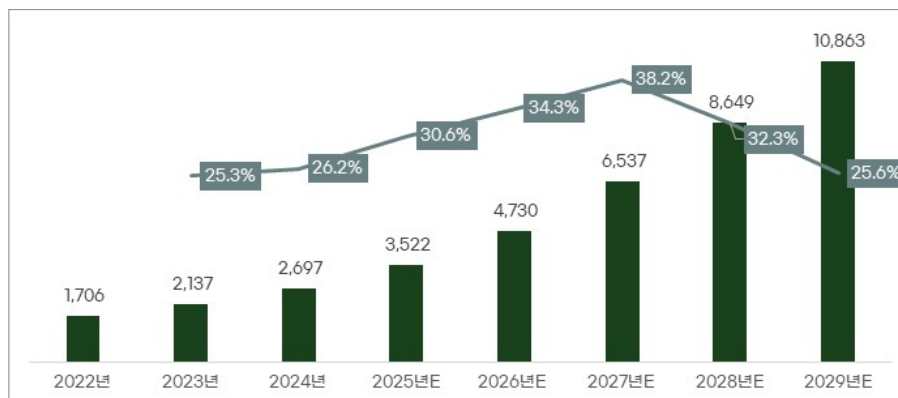


자료: 선전시인공지능산업협회

- 2024년 중국의 AI 산업 규모는 전년대비 26.2% 늘어난 2,697억 위안(약 371억 5,300만 달러)⁴⁾에 달함
 - 2025년 중국의 AI 산업 규모는 전년대비 30.6% 크게 늘어나 3,522억 위안(약 485억 1,8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
 - 2029년에는 시장규모가 1조 위안을 돌파하고 2024년부터 2029년까지 중국의 AI 시장규모는 연평균 성장률 32.1%에 이를 것으로 예상

중국의 AI 산업 시장규모 및 추이(2022년~2029년E)

단위: 억 위안, %



자료: iResearch

2. 정부 주도의 AI 산업 생태계

- 중국 AI 산업 생태계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 △데이터 자원과 응용시장의 방대함, △기초연구보다 산업 응용 위주, △인재 육성 및 산학연 협력 활성화 등임

4) 중국시장조사기관 iResearch

- 중국정부는 AI 산업 발전을 위해 자금, 데이터, 인재 시범사업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
 - 중국은 인구가 방대하고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돼 의료·금융·도시관리·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실증 데이터 확보가 쉬움
 - 딥러닝, LLM(대형언어모델) 등 선도 AI 기술 개발도 있지만 AI의 사용화와 서비스화에 특화
 - 칭화대, 베이징대 등 주요 대학교에 AI 특화 전공 및 연구소를 설립하고 해외 유학파의 중국 유턴 정책 등을 펼치는 등 인재 육성에 적극적
- 중국은 ‘정부 주도 + 산업 융합 + 자주 컨트롤’ 발전모델을 채택하여 AI와 산업 간의 융합발전을 강조
- 2024년 3월 중국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제14회 전국 인민대회에서 ‘AI+(人工智能+)’ 행동을 최초로 언급한 이후 2025년 정부 업무보고서에 본격적으로 포함
 - 정부 차원에서 산업, 농업, 서비스업 등에 AI가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을 촉진하고 전통 산업의 스마트화·첨단화·녹색화를 강조

중국의 AI관련 분야별 주요 정책

구분	정책	주요 내용
국가 전략	국무원 <차세대 AI 발전계획(新一代人工智能发展规划)>(2017)	· AI발전을 위한 ‘3 steps’ 전략 제시 - 2020년까지 AI의 종합적 기술 및 응용수준을 세계 수준까지 제고 - 2025년까지 일부 기술과 응용수준을 세계 선도수준까지 제고 - 2030년까지 AI 이론·기술·응용 등을 모두 세계 선도 수준까지 발전해 글로벌 AI 혁신의 중심으로 성장
표준 확립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국가 차세대 AI 표준체계 건설 가이드(国家新一代人工智能标准体系建设指南)>(2020)	· 2023년까지 AI 표준체계 확립 · 제조·교통·금융·안전·교육 등 중점 산업에서의 응용 확대
	공업및정보화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국가 AI 산업 종합표준화 체계 건설 가이드(国家人工智能产业综合标准化体系建设指南)>(2024)	· 2026년까지 국가 표준 및 업계 표준 50건 이상 제정 · 표준 홍보 및 실행 기업 1,000개사 이상 육성 · 국제표준 제정에 20건 이상 참여
산업 발전· 기술 혁신	국무원 <‘14차 5개년’ 디지털경제 발전 계획(“十四五”数字经济发展规划)>(2021)	· 각 중점 산업별로 AI의 활용을 확대하고 데이터 수집에 집중 · 스마트 의료설비, 스마트 운반설비, 스마트 식별시스템 등 제품의 설계 및 제조 분야에서의 AI 확대

구분	정책	주요 내용
산업 발전·기술 혁신	과학기술부, 교육부, 공업및정보화부 등 <높은 수준의 AI 적용을 통한 시나리오 혁신 가속화 및 고품질 경제 발전 촉진에 대한 의견 안내(关于加快场景创新以人工智能高水平应用促进经济高质量发展的指导意见)>(2022)	· 기업이 응용 시나리오 혁신의 주체가 돼 시나리오 개발, 자원 개방 등 실현 · 제조업·농업·물류 등 산업에서 응용 시나리오를 적극적으로 개발, 수학·화학·생물 등 과학 분야에서의 연구개발 촉진
인재 관리	공업및정보화부 <AI인재 육성 행동계획(2024-2026)(人工智能人才培养行动计划)>(2024)	· AI인재 육성에 관한 기준 제정 · AI 관련 교육과정 개발 강화 · 관련 대회 개최를 통해 우수 인재 배출
관리 감독	국가인터넷정보위원회,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생성형AI 서비스 관리 잠정 방법(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2023)	· 생성형AI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관련 콘텐츠 생성, 데이터 처리, 콘텐츠 식별 등 측면에서 이용자 권익 보호
	국가인터넷정보위원회, 공업및정보화부 등 <AI 생성 및 합성 콘텐츠 식별을 위한 조치(人工智能生成合成内容标识办法)>(2025)	· AI를 통해 생성된 텍스트·사진·오디오·비디오 등 콘텐츠에 대해 '라벨링 조치'를 시행해 AI 산업의 질서있는 발전 촉진

자료: KOTRA 선전무역관 정리

- 중국은 중앙정부 차원의 AI 전략 아래, 각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특화 육성 방안을 추진 중
 - 중국은 대표적으로 장강삼각주(長江三角洲), 주강삼각주(珠江三角洲), 징진지(京津冀) 등을 AI 전략거점 지역으로 선정하고 지역별로 기능과 역할을 분담
 - 징진지는 수도 베이징(北京)을 중심으로 기초 연구와 국가전략 기술개발에 집중함
 - 장강삼각주는 상하이(上海), 장쑤성(江蘇省), 저장성(浙江省)을 중심으로 'AI+산업' 융합 거점 구축
 - 주강삼각주는 선전(深圳)과 광저우(廣州)는 중심으로 AI 하드웨어 제조기지를 적극 육성
- 2024년 말 기준 중국 전역에는 100여 개의 인공지능 관련 산업단지가 형성돼 있음
 - 도시 별 분포도를 보면, 상하이시가 약 10개로 도시 중 가장 많음
 - 중국의 주요 AI 산업단지를 보면,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지역에 집중
 - 베이징중관춘AI 산업단지는 LLM 개발 및 AI반도체 연구개발에 집중해 바이두, Cambricon(寒武紀, 싸이우지) 등 중국 대표기업 입주

- 청두 텐푸소프트웨어단지 AI기지는 중국 서부지역의 알고리즘 핵심개발지역이며 시안 쓰루 소프트웨어성 AI단지는 일대일로 핵심 디지털 거점의 역할을 함

중국의 주요 AI 산업단지

단지명	소재지	대표기업	주요 분야
베이징중관춘AI 산업원 (北京中关村人工智能产业园)	베이징	바이두(百度), Cambricon(寒武纪), MEGVII(旷视科技)	LLM 개발, AI반도체
상하이 장강 AI섬 (上海张江人工智能岛)	상하이	YITU(依图科技), DeepBlue(深兰科技), 텐센트 AI Lab	컴퓨터 비전, 스마트 의료 등
선전 난산 스마트 단지 (深圳南山智园)	선전	HUAWEI Ascend(华为昇腾), DJI(大疆), UBTech(优必选)	로봇 시스템, 인텔리전트 터미널
항저우 미래과기성 AI단지 (杭州未来科技城AI园)	항저우	알리바바 DAMO Academy(达摩院), HikVision(海康威视)	도시 두뇌, 전자상거래 알고리즘
쑤저우 공업원 AI단지 (苏州工业园区人工智能产业园)	쑤저우	AlSpeech(思必驰), Ecovacs(科沃斯),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원	스마트 음성인식, 서비스로봇
청두 텐푸소프트웨어단지 AI기지 (成都天府软件园AI基地)	청두	CloudWalk(云从科技), Sefon Software(四方伟业), iFlytek(科大讯飞)	정부·관공서용 AI서비스, 스마트 문화관광
광저우 파저우 AI실험구 (广州琶洲人工智能试验区)	광저우	Pony.ai(小马智行), PCI Technology(佳都科技)	자율주행, 유통소매 알고리즘
우한 광구 AI센터 (武汉光谷人工智能中心)	우한	JIMU(极目智能), 샤오미 우한 지역본부	게임AI, 산업 품질 검사
난징 장베이신구 AI과기성 (南京江北新区AI科技城)	난징	Horizon Robotics(地平线), ZTE(中兴通讯)	스마트 교통, 스마트 제조
시안 쓰루 소프트웨어성 AI단지 (西安丝路软件城AI园)	시안	Dahua(大华股份), 화웨이 연구소	보안 시스템, 위성AI

주: 순서는 규모 등과 무관

자료: 중상산업연구원, KOTRA 선전무역관 정리

3. AI 산업 기초·기술 단계별 시장 현황

<일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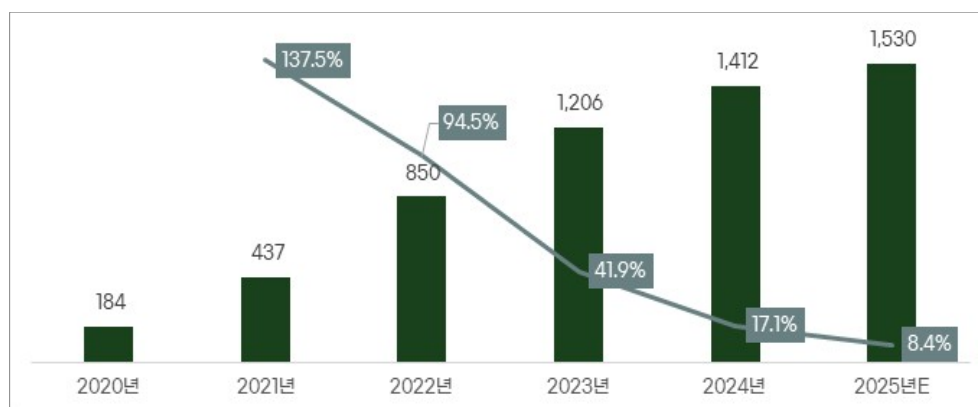
중국의 AI 산업은 크게 기초단계 - 기술단계 - 응용단계로 나뉨. 여기서는 기초단계와 기술단계를 소개하고, '2. 중국의 AI 주요 응용 분야 및 사례'에서 응용단계에 해당하는 중국의 AI 주요 응용분야 및 사례를 자세히 다룸

1) 기초단계

- 중국은 국산화 중심의 AI반도체칩, 스마트 센서, 클라우드 컴퓨팅 등 AI가 작동하기 위한 기초단계 인프라를 확보하고 개방형 생태계 구축하는데 적극성을 보임
 - 미국·유럽 대비 기초 이론 연구 수준은 다소 부족하다고 평가되나 데이터 및 컴퓨팅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
 - 2024년 중국의 AI반도체 시장규모는 1,412억 위안(약 194억 5,100만 달러)으로 전년대비 17.1% 증가⁵⁾
 - 중국의 AI반도체 시장은 2021년 137.5%, 2022년 94.5%의 성장률로 빠르게 확대
 - 2024년부터 성장률이 20%대 이하로 둔화했으나, 시장규모는 2023년 처음으로 1,200억 위안(약 165억 3천만 달러)을 돌파했으며 2025년에는 1,530억 위안(약 210억 7,7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

중국 AI반도체 시장규모 추이(2020~2025년E)

단위: 억 위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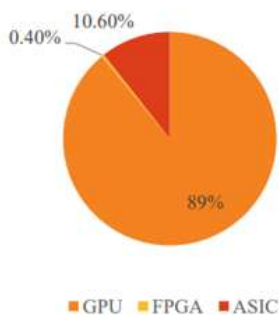


자료: 중상산업연구원

5) 중국시장조사기관 중상산업연구원(中商产业研究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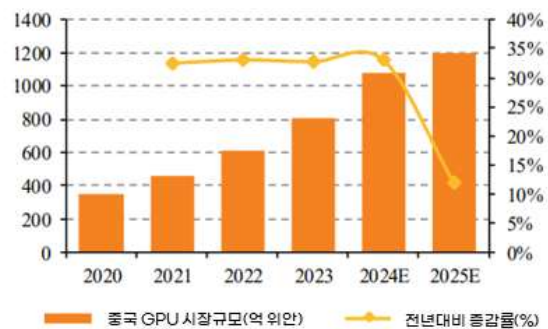
- 2023년 기준 중국의 AI반도체 시장에서 GPU가 89%를 차지해 가장 많음⁶⁾
 - 2025년 중국의 GPU 시장규모는 약 1,200억 위안(약 165억 3천만 달러)으로 예상
 - 2025년 기준 중국의 ASIC(Application-Specific Integrated Circuit) 및 FPGA(Field-Programmable Gate Array)의 AI반도체 시장 내 점유율이 각각 10.6%와 0.4%로 낮은 편이지만, 시장규모가 연평균 40% 넘게 빠르게 증가
 - FPGA는 현장에서 사용자가 직접 설정이 가능한 범용 칩으로, 유연성이 높아 향후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
 - 2024년 중국의 FPGA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20% 늘어난 249억 9천만 위안(약 34억 4,300만 달러)

① 중국 AI반도체 시장의 구성(2023년)



자료: 중상산업연구원, 텐핑증권연구소

② 중국의 GPU 시장규모 및 추이(2020~2025년E)



자료: 중상산업연구원, 텐핑증권연구소

③ 중국의 FPGA 시장규모 및 추이(2020~2025년E)



자료: 중상산업연구원, 텐핑증권연구소

④ 중국의 ASIC 시장규모 및 추이(2020~2025년E)



자료: QYResearch, 텐핑증권연구소

6) 중국시장조사기관 치엔잔산업연구원(前瞻产业研究院)

- Hisilicon(海思, 하이스), Mediatek(聯發科, 렌파커), UNISOC(紫光展銳, 즈광잔루이) 등이 중국의 주요 반도체 제조기업으로 꼽힘
- Cambricon은 AI추론용 반도체칩을, Horizon Robotics(地平線, 디평시엔)는 차량용 AI반도체칩을, UNISOC는 5G통신과 AI가 결합된 모바일 및 IoT SoC(System on chip)를 주로 설계하는 등 기업별로 특화영역 집중 개발 중

중국의 10대 AI반도체 기업

기업명	주요 제품 및 기술	본사
Hisilicon(海思)	· 화웨이의 팹리스 자회사 · 대표 시리즈 Kirin칩셋, 통신 칩, AI/NPU 등에 주력	선전
Mediatek(聯發科)	· 중국 대표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 · 스마트폰용 SoC, 스마트TV, AIoT, 네트워크 장비 등 통신 칩셋 개발에 주력	대만
UNISOC(紫光展銳)	· 중국 대표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 · 모바일, IoT, 자동차용 SoC 개발에 주력 · 특히 5G 통신과 AI기능이 통합된 칩 설계에 강점을 보임	상하이
OMNIVISION(豪威科技)	· 중국과 미국의 합자기업으로 이미지 센서 전문 기업 · 자동차, 의료기기, 모바일 등에서 AI와 결합된 스마트 비전 시스템의 핵심 부품 제공	선전
HDSC(华大半导体)	· 중국 전자정보기술 국유기업인 전자정보산업그룹(中国电子信息产业集团, CEC) 산하의 팹리스 기업 · 전력 시스템, 산업자동화에 사용되는 제어용 칩, 전력반도체 등에 주력	상하이
Loongson Technology(龙芯中科)	· 중국 CPU 국산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출범한 기업 · CPU 설계 및 관련 칩셋 개발에 주력	베이징
GigaDevice(兆易创新)	· 메모리와 MCU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팹리스 기업 · 자동차·스마트기기·로봇용 MCU 시장 선도	베이징
SANECIPS(中兴微电子)	· 글로벌 통신장비기업 ZTE의 팹리스 자회사 · 통신장비, 스마트가전 등 통합 칩 개발에 주력	선전
GOODIX(汇顶科技)	· 반도체 설계 및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 주로 모바일·IoT·자동차용 센서 IC 생산에 주력함	선전
Horizon Robotics(地平线)	· 차량용 AI반도체를 주로 개발 및 생산함 · 자율주행 및 ADAS(고급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위한 AI칩과 관련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솔루션이 핵심임	베이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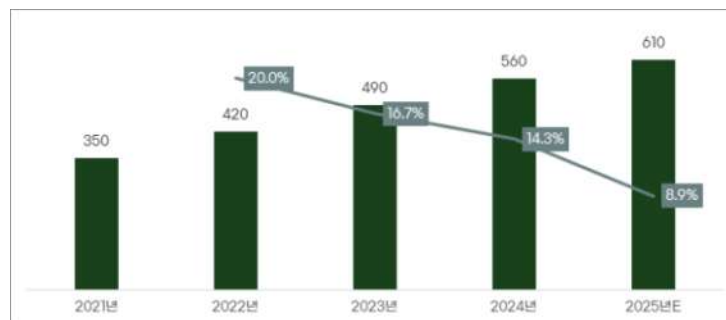
자료: CNPP(十大品牌网), KOTRA 선전무역관 정리

7) 중국 브랜드데이터연구원 CNPP(十大品牌网)

- 2024년 중국의 AI서버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14.3% 늘어난 560억 위안(약 77억 1,400만 달러)⁸⁾에 달함
 - 2025년에는 시장규모가 전년대비 8.9% 늘어난 610억 위안(약 8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
 - 2022년 기준 중국 AI서버 시장점유율 1위인 Inspur(浪潮, 랑차오)는 중국 AI서버 시장의 47%를 차지
 - 뒤를 이어 H3C(新华三, 신화산)(11%), Nettrix(宁畅, 닝창)(9%), ENGINETECH(安擎, 안친)(7%), Kunqian(坤前)(6%) 등이 2~5위를 차지
 - 2023년 3분기 기준, Inspur의 AI서버 출하량은 전 세계 AI서버 출하량의 11.9%를 차지해 2위를 기록
 - 매출액 기준으로는 전년동기대비 22.9% 늘어나면서 전 세계 AI서버 매출액의 9.3%를 차지

중국의 AI서버 시장규모 추이(2021~2025년E)

단위: 억 위안, %



자료: 중상산업연구원

2) 기술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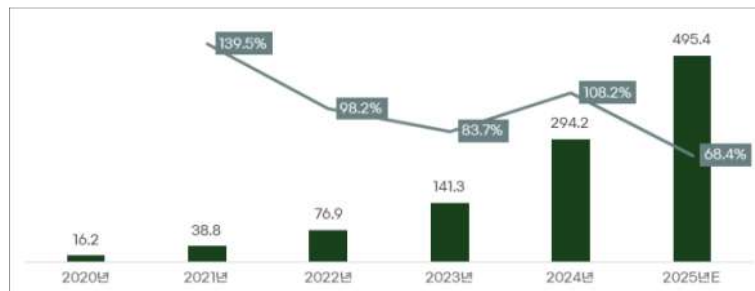
- 중국은 AI 산업 기술단계에서 국산화 중심의 수직계열화 전략을 앞세워 모델 양산 속도가 세계 최상위권이지만 기술 완성도와 범용성 측면에서는 아직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
 - 기술단계는 기초 자원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학습하고 모델을 훈련하는 기술을 연구 및 상용화하는 단계로 중국은 '칩 → 프레임워크 → 모델 → 플랫폼'까지 내재화된 AI 생태계 구축하고자 함
 - 중국의 기술단계 경쟁은 2023년부터 LLM중심으로 전환됐으며 범용보다는 중국어 또는 중국 현지상황에 맞춘 모델 개발에 우위를 가짐

8) 중상산업연구원

- 2024년 중국의 LLM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108.2% 폭발적으로 늘어난 294억 1,600만 위안(약 40억 5,200만 달러)에 달함
 - 2025년에는 500억 위안에 육박하는 495억 위안(약 68억 1,900만 달러)으로 예상
 - 중국의 LLM 시장 증가율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소 68.4%, 최대 139.5%로 큰 폭의 성장률을 보임

중국의 LLM 시장규모 추이(2020~2025년E)

단위: 억 위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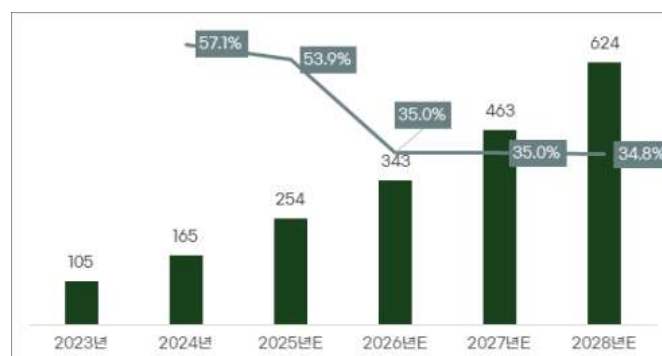


자료: 중상산업연구원

- 최근 특정 산업에 특화된 LLM인 ‘산업기반 LLM’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 범용 LLM보다 특정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전문용어, 산업 시나리오 등에 최적화돼 있음
 - 주로 의료, 공공행정, 금융, 교육 등 문서기반 업무가 많고 보안에 대한 요구가 높은 산업분야에서 산업기반 LLM을 활발하게 도입하고 있음
 - 2024년 중국의 산업기반 LLM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57.1% 큰 폭으로 늘어난 165억 위안(약 22억 7,300만 달러)
 - 2025년에는 254억 위안(약 34억 9,900만 달러)을 돌파하고 매년 35% 내외 성장률을 기록하며 2028년에는 624억 위안(약 85억 9,6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

중국의 산업기반 LLM 시장규모 추이(2023~2028년E)

단위: 억 위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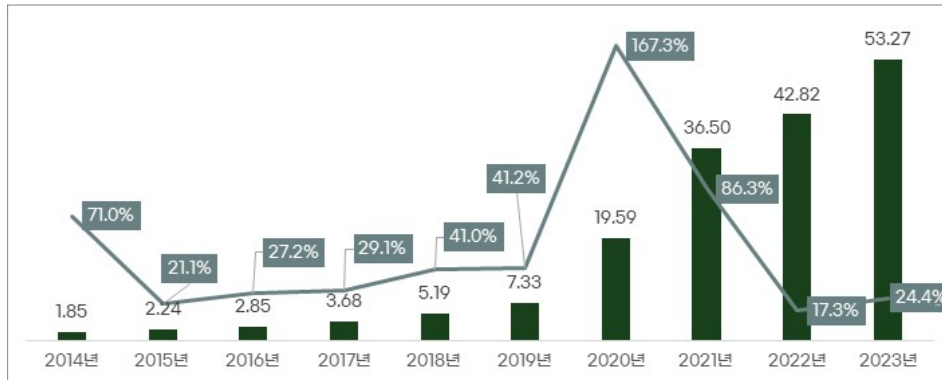
자료: 중상산업연구원

4. 중국의 지역별 AI 산업 발전 현황

○ 2024년 2월 기준 중국에 등록된 AI기업은 160만 8,700개 사에 달함⁹⁾

중국의 AI기업 수 추이(2014~2023년)

단위: 만 개사



자료: 치차차

- 중국의 AI기업은 2020년 전년대비 167.3% 크게 늘어난 이후로 증가율은 둔화했으나 기업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특히 2021년 36만 5천 개 사, 2022년 42만 8,200개 사, 2023년 53만 2,700개 사로 3년 동안 약 133만 개 사가 늘어남

○ 2024년 중국 AI기업 TOP 50 중 베이징이 20개 사로 가장 많음¹⁰⁾

- 다음으로 주요 AI기업이 밀집된 지역은 광둥성으로 TOP50 기업의 24%가 광둥성에 소재
- 상하이에 9개 사, 장쑤성에 3개 사 등이 있으며 주로 동부 연안지역에 밀집돼 있음

중국의 AI기업 TOP 50 분포도(2024년)



자료: <광둥성 AI 산업 발전연구보고서>

9) 중국기업정보 조회사이트 치차차(企查查)

10) <광둥성 AI 산업 발전연구보고서>

1) 장강삼각주(長江三角洲)

- 장강삼각주 지역의 AI 산업은 상하이가 주도하고 장쑤성과 저장성이 협력해 발전하는 구도
 - 2024년 말 기준 장강삼각주에 소재한 AI분야 핵심기업은 1,367개 사로 중국 전체 AI기업의 31.7% 차지¹¹⁾
 - 이 중 49%는 상하이시에 집중돼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저장성(27%), 장쑤성(20%), 안후이성(安徽省)(4%) 등에 분포
- 상하이시의 AI 산업은 기업, 산업규모, 인재 등 세 가지 측면에서 고속 성장 중임
 - 특히, 상하이에는 약 30만 명의 AI 분야 인재가 있으며 이는 중국 전체 AI 인재의 3분의 1을 차지
 - 2025년 3월까지 상하이시에는 총 10,660개 AI기업이 있으며 이 중 196개 사는 상장기업¹²⁾
 - 약 25.8%는 정부가 지정한 첨단기술기업(國家高新技術企業)이며, 18.7%는 전정특신(專精特新) 기업
 - 전정특신기업은 전문성(專), 정밀성(精), 특색(特), 혁신성(新)을 갖춘 기업으로 중국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선정

상하이의 AI기업 현황



자료: 찬예통(產業通)

11) 항저우시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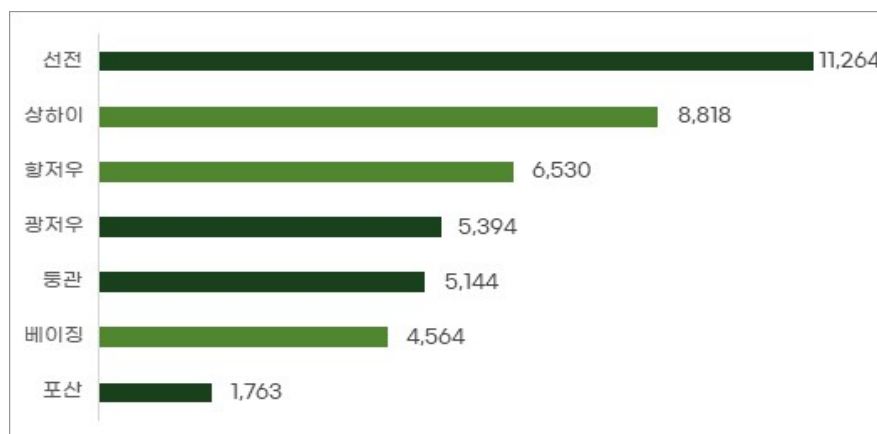
12) 산업정보조사기업 찬예통(产业通)

2) 주강삼각주(珠江三角洲)

- 주강삼각주 지역의 AI 산업은 선전과 광저우가 양대 축이 돼 주도하며 혁신 전기전자 분야, 산업용 로봇 등 산업에 특화돼 있음
 - 2024년 기준 광둥성 AI관련 전체 산업규모는 2,200억 위안(약 303억 달러)을 돌파했으며 약 1,500개의 핵심기업 및 국가급 전정특신 기업이 집중돼 있음
 - 선전은 완전한 AI 산업 밸류체인을 구성한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 스마트 제조, 스마트 가전, 스마트 교통 등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냄
 - 광저우의 AI기업 중 약 25%는 핵심 기술 개발에 집중하며 약 30%는 첨단 장비제조에 주력
 - 둥관(東莞)은 산업용 로봇에 특화된 AI기업이 포진해 있으며 주하이(珠海)는 반도체 설계, 연산 시스템 개발 등이 주력 분야
- 2020~2024년 중국에 새롭게 등록된 AI기업 수를 보면, 선전이 11,264개사로 주요 도시 중 가장 많음
 - 주요 도시 상위 7개 중 광저우, 선전, 둥관, 포산(佛山) 등 4개 지역이 광둥성에 있음
 - 중국에는 총 11개의 국가급 AI 혁신응용 선도구역이 있으며 광둥성은 유일하게 광저우와 선전 2개 선도구역을 보유한 지역

2020~2024년 주요 도시별 신규 등록 AI기업 수

단위: 만 개사



자료: 선전시인공지능산업협회

3) 징진지(京津冀)

- 징진지 지역에서는 수도 베이징에 AI 산업의 정책수립과 연구개발에 집중돼 있음
 - 2023년 말 기준 베이징에 소재한 핵심 AI기업은 2,234개사로 바이두, ByteDance(字節跳動, 즈지에타오둥), SenseTime(商湯科技, 상탕커지) 등 글로벌 기업이 많음
 - 베이징의 첨단산업단지인 중관촌(中關村)에는 중국 AI 유니콘기업의 43%가 입주해 있음
 - 특히 베이징에는 베이징대학, 칭화대학, 중국과학원 등 115개 대학교가 밀집돼 있어 AI 관련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짐
- 2024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AI 특허를 신청한 도시는 베이징으로 2024년 한 해 베이징의 AI 관련 특허신청이 23,553건에 달함
 - 2위인 선전시의 AI 관련 특허신청건수는 11,094건으로 이는 베이징의 절반 수준
 - 3위와 4위는 상하이와 항저우로, 신청 건수는 상하이 8,620건, 항저우 8,145건

중국의 주요 도시 별 AI 특허 신청 건수(2024년)

단위: 건



자료: 선전시인공지능산업협회

II. 중국의 AI 주요 응용 분야 및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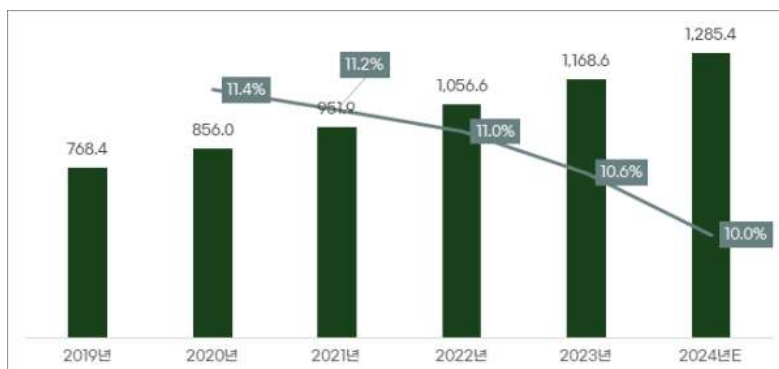
1. AI + 제조업

<일러두기>

이번 장에서는 중국 AI의 제조업 적용 사례를 스마트팩토리와 등대공장(Factory Lighthouse)'을 중심으로 분석함. 스마트팩토리는 AI를 비롯해 IoT, ICT, 센서, 빅데이터 등 다양한 첨단기술을 활용해 제조 공정의 자동화·지능화·최적화를 실현하는 공장을 의미

- 중국의 'AI+제조업' 분야는 정부의 '제조강국 전략'과 'AI+ 행동전략'이 결합해 국가급 스마트팩토리와 지능형 공장 프로젝트를 적극 확산 중
 - 특히 '제조 대기업'과 '빅테크 기업'간의 협업 체계를 통해 다수의 성공사례가 나옴
 - 비전AI 기반 품질검사, 디지털 트윈 기반 시뮬레이션, AI기반 스케줄링 등 AI 기술을 적극 적용하고 있고, 중소 제조사에도 AI기술 적용 확대
 - 속도와 범위는 세계 최상위 수준이지만 핵심 알고리즘 기술이나 고정밀 장비 통합 솔루션 등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편
- 2024년 중국의 스마트팩토리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10.0% 늘어난 1조 2,854억 위안(약 1,771억 달러)¹³⁾
 - 중국의 스마트팩토리 시장은 2022년 1조 위안을 돌파한 이후에도 매년 10%대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임
 - 스마트팩토리 시장규모 증가속도는 2020년 11.4%에서 2024년 10.0%로 소폭 둔화

중국의 스마트팩토리 시장규모 추이(2019~2024년E)
단위: 십억 위안, %



자료: Statista

13)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Statista

- 2025년 2월 기준 중국의 스마트팩토리는 3만여 개에 달함¹⁴⁾
 - 세부적으로 보면, 기초급 스마트공장이 3만 개가 넘고, 첨단급 및 슈퍼급 스마트팩토리는 각각 1,200개와 230여 개로 집계
 - 공업및정보화부는 스마트팩토리를 △기초급(基础級), △첨단급(先進級) △슈퍼급(卓越級) △선도급(領航級) 등 4가지 등급으로 구분

중국의 스마트팩토리 등급별 조건 및 현황

구분	개수(2025년2월 기준)	요구조건
기초급 基础级	30,000여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화·디지털화·네트워크 기반 수집 기능 도입 · 최소 8개 이상의 시나리오 수행 필요(핵심 공정 자동화, 핵심 데이터 실시간 수집 등 기능) · 일반적으로 연매출 2천만 위안 이상인 산업현장에 적합함
첨단급 先进级	1,200여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가 지정한 첨단제조 능력 성숙도 2급 이상 유지 · 생산 작업, 생산관리, 운영관리 등 3개 단계에서 최소 15개 이상의 시나리오 수행 필요 · 자동화 기반을 갖춘 성급 혹은 중앙기업에 적합함
슈퍼급 卓越级	230여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가 지정한 첨단제조 능력 성숙도 3급 이상 유지 · 연구개발, 생산 작업, 공장 건설 등 5개 단계에서 최소 20개 이상의 시나리오 수행 필요 · AI 적용비율이 20% 이상이어야 함
선도급 领航级	육성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가 지정한 첨단제조 능력 성숙도 4급 이상 유지 · 5개 주요 단계에서 최소 25개 이상의 시나리오 수행 필요 · AI 적용비율이 60% 이상이어야 함

자료: 공업및정보화부, KOTRA 선전무역관 정리

- 중국의 스마트팩토리 산업은 AI, 자동화, 소프트웨어, 첨단설비 등 기술과 제품을 아우름¹⁵⁾
 - 중국의 스마트팩토리는 설계부터 계획, 생산, 품질관리까지 자국의 산업IoT 플랫폼 기업이 주도
 - 스마트팩토리에서 에너지 및 탄소관리는 단순히 공장 운영의 효율화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진입, ESG 실현 등의 핵심 요소로 그 중요도가 높아짐

14) 중국 공업및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15) 중국 산업정보조사기관 이오즈쿠(亿欧智库)

중국의 스마트팩토리 산업체인 별 핵심 기업



주: 각 기업별 중문·영문명은 49페이지 참고자료에 상세하게 기재돼 있음

자료: 이오즈쿠(亿欧智库)

- 스마트팩토리의 공정 흐름은 ①설계 및 개발 → ②생산계획 및 운영 → ③자재 관리 및 공급망 → ④제조 공정 → ⑤품질관리 → ⑥설비 관리 및 유지보수 → ⑦물류 및 출하 → ⑧사후관리 및 서비스 등 단계를 거침
- AI기술은 공정의 모든 단계에 적용될 수 있으며 특히 비전AI, AI기반 생산 스케줄링, 자동화 물류 로봇 시스템 등이 대표적인 사례
- 중국은 알리바바, 화웨이, 바이두 등 빅테크 기업의 클라우드 기반 산업IoT 플랫폼을 내세워 산업별 특화된 AI 솔루션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

중국의 스마트팩토리 공정 흐름별 주요 AI기술 및 사례

공정 흐름	주요 AI 기술 적용 분야	중국 내 대표사례
설계 및 개발	· AI 기반 CAD/CAM* 설계 · 디지털트윈 기반 최적화 (AI기반 시뮬레이션)	화웨이의 산업 AI 플랫폼 'FusionPlant'
생산계획 및 운영	· AI기반 수요예측 · AI기반 생산 스케줄링	Haier의 클라우드 기반 산업IoT플랫폼 'COSMOPlat'
자재관리 및 공급망	· 공급망 위험 분석 · 자재 수요예측	알리바바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 자재 흐름 자동화 시스템
제조 공정	· AI기반 비전 검사 · 예지보전(Predictive Maintenance) · AI기반 협업로봇	BYD, CATL 등 배터리 생산라인 내 AI비전 검사 시스템 도입
품질 관리	· AI기반 불량원인 분석 기술 · 고객 VOC 분석	징둥(JD) 산업IoT플랫폼 '징둥공업'

공정 흐름	주요 AI 기술 적용 분야	중국 내 대표사례
설비 관리 및 유지보수	· 설비 이상 예측 및 점검 · AR+AI 원격진단	중국바오우(中国宝武)의 제철설비 유지보수 AI 서비스
물류 및 출하	· AGV 물류 자동화시스템 · 출하검수 이미지 인식 시스템	DJI의 로봇+AI 물류 자동화 솔루션
사후관리 및 서비스	· 디지털트윈 기반 사용이력 분석 · AI 챗봇 서비스	중국남방전망(中国南方电网)의 설비 원격 진단 시스템

주: CAM(Computer-Aided Design), CAM(Computer-Aided Manufacturing):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제어 기계를 사용해 제조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기술

자료: KOTRA 선전무역관 정리

- 스마트팩토리의 최고 수준의 모범 사례로 '등대공장(Factory Lighthouse)'이 있음
 - 이는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모범적으로 도입해 디지털 전환에 성공한 공장에 부여하는 글로벌 인증
 - 등대공장 선정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도입, 측정 가능한 성과, 확장성 등을 기준으로 함
 - 등대공장은 목적에 따라 △Factory Lighthouse(기본형) △End-to-End(E2E) Value Chain Lighthouse △Sustainability Lighthouse로 구분

중국의 등대공장 별 대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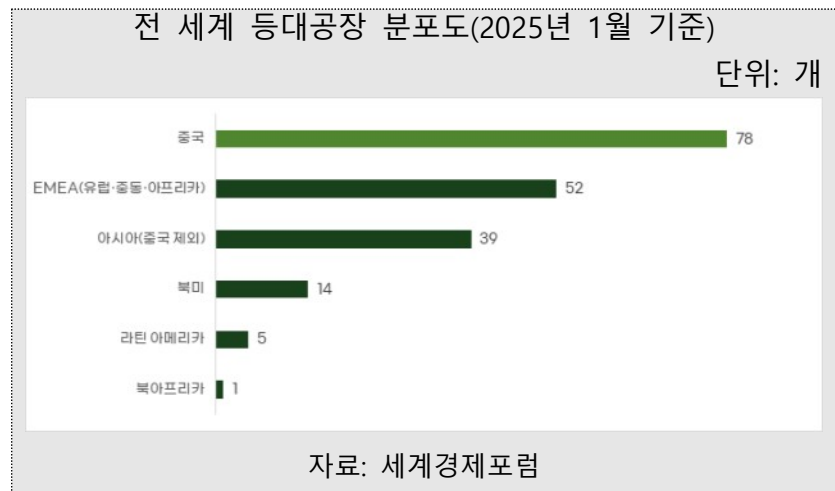
구분	중국공장수*	기준	중국의 대표사례**
Factory Lighthouse	49	·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해 공장의 생산성·품질·유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한 사례 → AI, IoT, 로봇, 디지털 트윈 등이 핵심	· 2025 구이저우타이어(贵州轮胎)-구이양-자동차 부품 · 2025 발레오(Valeo)-선전-전기전자 · 2023 광저우아이안(广汽埃安)-광저우-전기차
End-to-End ^(E2E) Value Chain Lighthouse	27	· 설계-생산-물류-판매까지 전체 공급망에 걸쳐 통합적인 디지털 전환을 이룬 사례 → 전 과정 AI-데이터에 기반해 고객 맞춤형 생산이 핵심	· 2020 웨이차이(潍柴)-웨이팡-공업기계 · 2022 메이디(美的)-허페이-가전제품 · 2023 켄뷰(kenvue)-상하이-소비자 건강
Sustainability Lighthouse	8	· 탄소 감축, 에너지 절감 등 지속가능성을 핵심 목표로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사례 → AI·IoT 등 기술을 활용해 에너지 관리 최적화가 핵심	· 2021 하이얼(海尔)-톈진-가전제품 · 2021 칭다오맥주(青岛啤酒)-칭다오-식음료 · 2025 슈나이더 일렉트릭(Schneider Electric)-우시-산업장비

* 주: 1. 위 표의 중국공장수는 2025년 1월 기준 선정된 중국 내 등대공장의 분류별 공장 수임. 하나의 공장이 두 개 카테고리로 중복 선정도 가능함

2. 중국의 대표사례에 기술된 내용은 등대공장 선정연도-기업명-공장 소재지-분야 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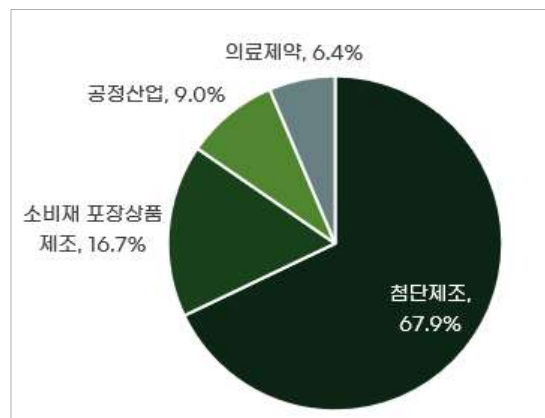
자료: 세계경제포럼, KOTRA 선전무역관 정리

- 2025년 1월 기준, 전 세계 등대공장은 189개로 그중 41.3%에 해당하는 78개가 중국에 소재
 - 중국은 5년 연속 전 세계에서 등대공장이 가장 많은 국가
 - 2위는 미국으로 총 32개가 있으며 독일 18개, 일본 15개로 각각 3위와 4위를 기록



- 중국 등대공장의 67.9%는 첨단제조 분야의 공장으로 총 53개에 달함
 - 두 번째로 많은 분야는 소비재 포장상품 제조공장으로 총 13개
 - 다음으로 공정산업이 9.0%, 의료제약이 6.4%를 차지
 - 첨단제조 분야의 산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기전자가 14개로 가장 많고, 뒤를 이어 가전제품(12개), 자동차(8개), 부품제조(8개) 순으로 집중돼 있음

중국 등대공장의 분야별 비중(2025년 1월, 78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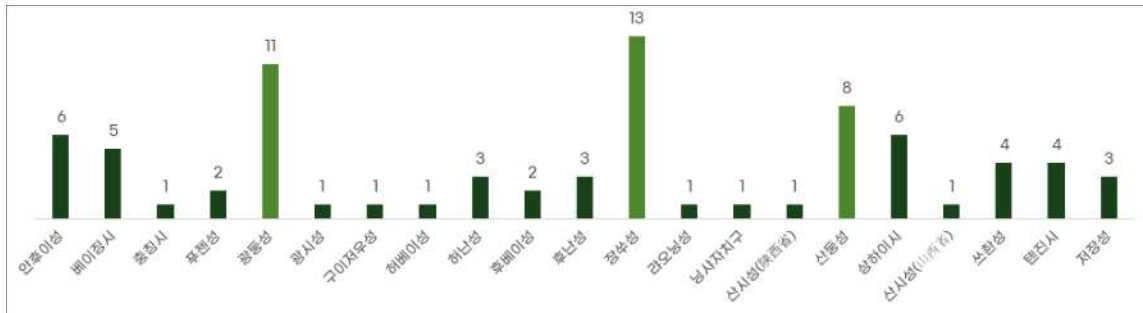


자료: 세계경제포럼

- 중국 등대공장의 지역적 분포를 살펴보면, 장쑤성이 13개로 가장 많은 등대공장이 있음
 - 광둥성은 11개로 두 번째로 많으며 산둥성이 8개로 세 번째로 많음
 - 시별로 보면, 안후이성 허페이시와 상하이시 각각 6개로 가장 많고, 베이징이 5개로 두 번째로 많음

중국의 성시별 등대공장 수(2025년 1월, 78개 기준)




단위: 개



자료: 세계경제포럼

- 중국 등대공장 중에서도 CATL(宁德时代, 닝더스다이), Haier(海爾, 하이얼) 등이 AI적용 비중이 높고 디지털 전환에 성공한 대표 사례로 꼽힘
 - 글로벌 배터리 제조기업 CATL은 닝더(宁德), 이빈(宜賓), 리양(溧陽)에 소재한 3개의 공장이 각각 2021년, 2022년, 2023년에 등대공장으로 선정
 - CATL의 닝더공장은 전 세계 최초의 배터리 분야 등대공장이며, 현재까지 리튬배터리 분야의 등대공장은 CATL이 유일



CATL의 3개 등대공장 개요

<div>닝더</div> <div>(2021년)</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및 클라우드 시스템 도입 → 배터리팩당 제조시간을 1.7초까지 감축 · AI기반 중앙 컨트롤 시스템 도입 → 노동생산력 75% 증가
<div>이빈</div> <div>(2022년)</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의 전기를 수자원으로 대체 → 세계 최초 탄소배출이 0인 배터리 공장 · 장비 등 하드웨어뿐 아니라 시스템의 자동화를 도입 → 생산라인의 생산속도 17% 증가 · 센서를 통한 데이터 수집 및 생산효율화 방안 도출 → 전 구역 100% 온라인 감시 실현, 데이터 교환 속도 50% 제고
<div>리양</div> <div>(2023년)</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빅데이터 기반 품질검사 시뮬레이션 추진 → 제품 결함률을 PPM(백만분의 일)에서 PPB(십억분의 일)로 감소 · 3D프린터 기술 및 AI비전 검측 활용 → 생산능력 320% 제고, 제조 단가 33% 절감 · AI학습을 통한 에너지 관리 시스템 도입 → 이산화탄소 배출 47.4% 감소

자료: sina, CATL 홈페이지 등, KOTRA 선전무역관 정리

- 글로벌 가전제품 기업인 Haier과 Media(美的, 메이디)도 AI기반의 자동화 시스템 및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제로 탄소배출' 성과로 등대공장에 다수 선정
- 2025년 1월 기준 Haier은 총 10개의 등대공장을 보유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등대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그중 텐진의 세탁기 제조공장은 중국기업 중 최초로 '지속가능한 등대공장'으로 지정
- Media는 두 번째로 많은 등대공장을 보유한 중국기업으로 총 6개의 등대공장을 갖고 있음
- Media는 자체 개발한 산업IoT플랫폼 '메이칭(美擎)'을 발표해 Media뿐 아니라 5천여 개의 공장을 대상으로 디지털 전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중국의 가전제품 제조기업은 단순히 제조업을 넘어서 AI기반의 플랫폼 서비스 기업으로 거듭남

Haier 및 Media의 등대공장 사례

 텐진 세탁기 등대공장 Sustainability Lighthou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전 세계 세탁기 제조공장 중 최초의 'E2E 등대공장'으로 등극했으며 2023년에는 최초의 '지속가능한 등대공장'에 선정됨 · AI 알고리즘 기반 에너지 소비 데이터를 분석하고 전략 최적화 → 에너지 소비 35% 감소, 온실가스 배출량 36% 감소 · 5G+AI비전이 결합된 검수 시스템 확대 → 결함 인식 정확도 99.9% 도달 · AI기반의 스마트 수자원 관리 시스템 도입 → 세탁기 한 대당 물 소비량 54% 감소, 폐기물 59% 감소
 충칭 냉동설비 등대공장 End-to-End(E2E) Value Chain Lighthou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칭시 최초의 등대공장이자 제조 쉼주기에 AI기술이 활용됨 · R&D단계에서 자체개발한 제품 수명 주기관리 시스템(PLM)을 기반으로 23만 개 설계도면을 활용해 AI 알고리즘 구축 → 제품 설계 주기 45% 단축 · AR(증강현실) 및 AI 기반의 품질 검측 프로세스 도입 → 용접주기가 2.3일에서 0.6일로 단축, 용접 불량률 12% 감소 · AI기반 스마트 스케줄링 및 품질 관리 시스템 → 생산 효율성 30% 증가, 운영비용 15% 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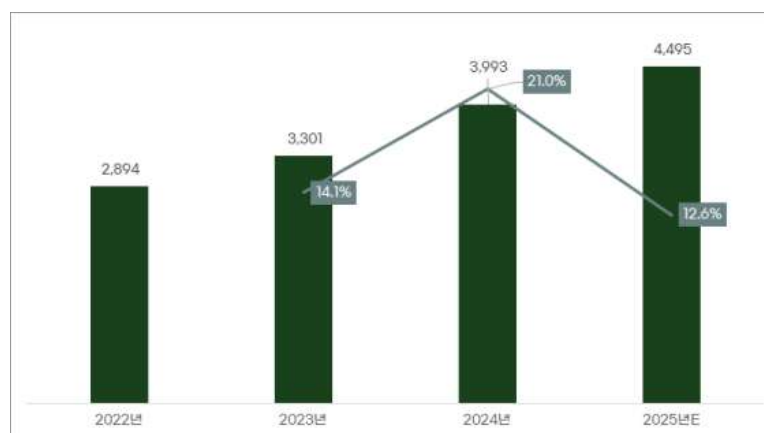
자료: Haier, 메이디 홈페이지, 충칭시정부 등, KOTRA 선전무역관 정리

2. AI+자율주행

- 중국의 AI+자율주행 분야는 △정부 및 빅테크 기업 중심의 종합 생태계 △인프라 중심의 독자적 모델 구축 △AI칩 및 V2X 등 기술의 자체 개발 및 상용화 등 특징을 보임
 - 중국은 주요 도시의 도로를 개방해 실제 로보택시를 운영하면서 도심 교통환경에서 수집된 방대하고 복잡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음
 - BAT(Baidu, Alibaba, Tencent) 등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 칩 → 플랫폼 → 클라우드'까지 전방위 수직계열화 추진 중
 - 다만 대도시 중심의 실증으로 중소도시로의 확산이 어렵다는 점과 표준화·안정성 규제는 여전히 도입 과정에 있음
 - 특히 AI 자율주행 칩, GPU, 고성능 센서 등 기술 핵심분야에서는 여전히 대외 의존도가 높은 편
- 2024년 중국의 자율주행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21.0% 늘어난 3,993억 위안(약 550억 달러)¹⁶⁾
 - 2025년에는 시장규모가 12.6% 증가하면서 4천 5백억 위안(약 619억 9천만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
 - 중국의 자율주행 시장은 로보택시(무인택시)가 중심이나 최근에는 지역에 따라 로보버스, 로로트럭, 목적별 무인자동차(배달, 물류, 미화 등) 등으로 확대

중국의 자율주행 시장규모 추이(2022~2025년E)

단위: 억 위안, %



자료: 중상산업연구원

16) 중상산업연구원

- 자율주행 자동차의 산업 밸류체인을 살펴보면, 업스트림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핵심 기술 - 미드스트림 완성차 제조 - 다운스트림 운영 및 서비스 등으로 구분
 - 업스트림의 하드웨어 중에서도 라이다(LiDAR),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용 카메라, 레이더(Rader), 고정밀 GPU 등이 핵심
 - 라이다, 카메라 등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눈’ 역할을 하는 하드웨어 센서로 이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AI가 해석

중국의 자율주행 산업체인 별 핵심 기업 리스트



주: 각 기업별 중문·영문명은 50페이지 참고자료에 상세하게 기재돼 있음

자료: 귀타이하이통증권연구소

- 중국은 2018년부터 자율주행 규제 샌드박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AI+ 자율주행+스마트시티’를 통합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시장을 확대
 - 2022년 중국이 발표한 <시험운영 자동차 안전 샌드박스 관리감독 제도에 대한 통지>에 따라 안정성과 완화된 규제 하에 지역 및 차량모델 단위로 최대 24개월 간 실증이 가능해지면서 AI 기반 자율주행 기술 검증 속도가 빨라짐
 - * <关于试行汽车安全沙盒监管制度的通告>, 시장감독총국 등 5개 부서 연합 발표
 - 베이징, 상하이, 선전, 광저우 등 주요 도시는 시험구를 지정하고 테스트를 위한 도로를 개방하는 등 ‘제도적 기반 → 인프라 구축 → 서비스 상용화’를 동시 진행 중

베이징·상하이·선전·우한의 자율주행 시장 발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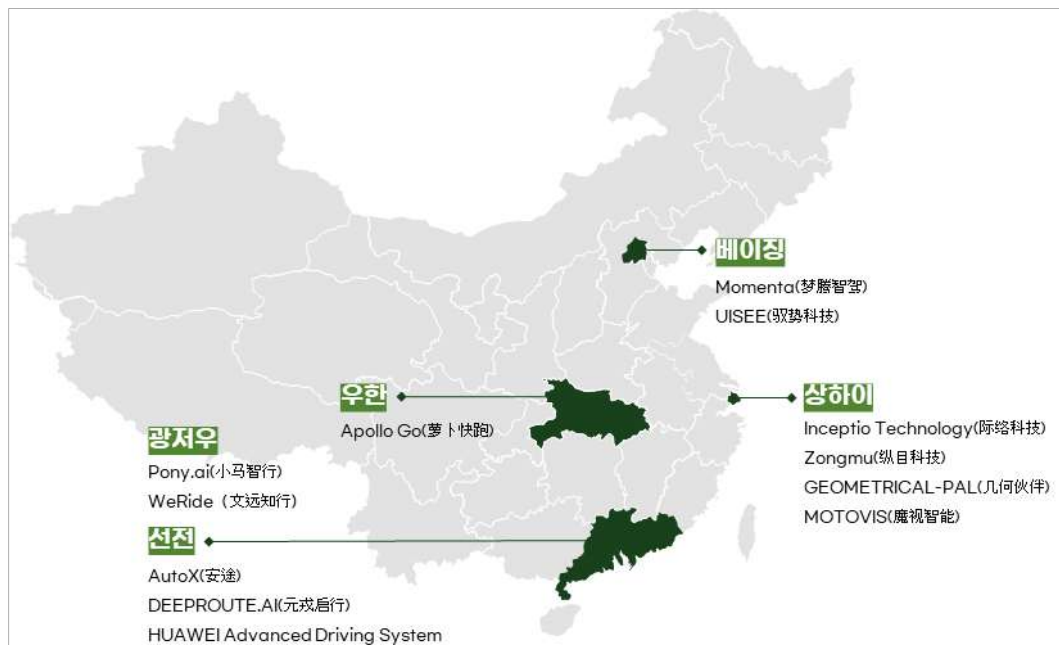
구분	법·제도	인프라	발전현황
베이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이징 자율주행 조례>(2025.4)에 따라 L3(조건부 자율주행)의 도로 실증 및 운행 허용 · 사고 책임주체를 차량 제조사로 명확히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이징 고급 자율주행 시범구' 600km² 범위까지 확대 · 257개 스마트 도로 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6월까지 시범구에서 시범운행 가능한 차량은 1,000개로, 35개 이상 자동차 제조사가 시범운행에 참여 · Weride, Pony.ai, Apollo Go 등 완전 무인 로봇택시의 상용이 허가됨 · 공항 및 고속도로 등을 개방해 로봇택시는 시속 100km/h로 운행할 수 있음
상하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상하이 푸둥신구의 자율주행 차량 촉진을 위한 혁신 응용 규정>을 발표함 · 규정에 따라 기업은 개별 차량별 최소 5천km의 시범운행을 거쳐야 상용화 번호판을 발급받을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3월까지 상하이는 누적 2,767km에 달하는 1,586개 테스트도로 개방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린강신피엔지구(临港新片区)에 386km² 구역 개방, 로봇택시, 로봇트럭, 로봇버스 등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7월부터 Pony.ai, Baidu 등 4개 기업이 자율주행 시범운영 허가를 획득해 푸둥 도로에서 유료 서비스를 상용화함 · 2025년말까지 자율주행 시장규모 5천만 위안 달성을 목표로 하며 신차 중 L2, L3 비중을 70%까지 확대할 전망
선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선전경제특구 스마트커넥티드자동차 관리 조례>를 발표해 L3~L5별 책임을 명확화하고 시범운행 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5월까지 선전 내 도로망의 24%인 2,101km 구간이 스마트커넥티드 자동차 테스트용으로 개방됨 · 핑산구(坪山区)는 440km의 도로 전체를 개방해 자율주행 상용화 시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봇택시 외 물류, 미화, 배달 등 목적별 무인자동차의 운영이 활발하게 이뤄짐 · 2025년 6월까지 선전에서 운행 중인 목적별 무인자동차는 300여 대 · 선전 마완스마트항구(妈湾智慧港)에서는 로봇력 38대 운영 중
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한 스마트커넥티드차 발전 촉진 조례>(2025.3)에 따라 L3(조건부 자율주행)의 도로 실증 및 운행 허용 · 사고 책임주체를 차량 제조사로 명확히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5월 기준, 누적 3,379km의 테스트 도로를 개방함 · 이는 12개 행정구와 3천km² 면적에 해당돼 중국에서 가장 길고 넓음 · 1,800여개의 카메라, 라이다, 기상 탐측기 등 스마트센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4월 기준 무인택시 이용량은 250만 회에 달하며 전 세계 최대 무인택시 운영지역임 · 스마트커넥티드차량 핵심기업이 100개 이상이며 현지 부품·서비스 등 공급률이 65%에 달함

구분	법·제도	인프라	발전현황
		장비를 설치해 고정밀 '도시 정보모델링(CIM)' 구축	· 2024년 산업규모는 800억 위안으로 중국 전체 시장의 12.3% 차지하며 2025년에는 1천억 위안 돌파 예상

자료: 광밍망(光明网), 치엔룽왕(千龙网) 등, KOTRA 선전무역관 정리

- 중국에는 라이다, 카메라, 센서 등 하드웨어를 만드는 기업뿐 아니라, '인지-판단-제어'를 할 수 있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스택을 개발하고 차량 통합까지 담당하는 자율주행 솔루션 기업이 많음
- 대표적으로 Apollo Go(萝卜快跑, 뽀빠콰이파오), Pony.ai(小马智行, 샤오마즈싱), WeRide(文远知行, 윈위엔즈싱) 등
- 자율주행 솔루션 기업은 차량이 스스로 주변을 인식하고 주행 경로를 판단해 가속·제동을 하게 하는 AI 기반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을 통합 개발하는 기업
- 바이두의 Apollo Go는 베이징, 우한, 충칭 등 지역에서 로보택시를 운영 중이며, Pony.ai는 로보택시 외에도 로보트럭 190대 이상을 시범운영 중



중국의 자율주행 솔루션 기업 분포 지도




자료: 즈윈엔바오(智云研报), KOTRA 선전무역관 정리

- 중국은 정부차원의 규제완화, 번호판 발급 등 행정적 편의, 도시 인프라 개방 등에 힘입어 Apollo Go, Pony.ai, WeRide 등 중국의 대표적인 로보 택시 기업이 서비스를 상용화하는 데 성공
 - 이들은 주로 △공급망 내재화 △자체 자율주행 플랫폼 개발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 등을 통해 시장을 개척
 - Pony.ai와 WeRide는 중동시장 진출을 위해 글로벌 승차공유 플랫폼 Uber와 협력
 - 이들이 자율주행 기술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Uber 플랫폼을 활용해 고객을 유치하는 방식

중국 3대 로보택시 기업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두 산하의 자율주행 서비스 플랫폼으로 2020년 12월에 설립됨 ·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외진출을 시작해 2024년에는 두바이, 아부다비에 진출하고 2025년에는 스위스, 튀르키예 등 진출 계획 중 · 2025년 5월 기준 전 세계 15개 도시에 1천 대의 로보택시를 운영 중임 · 누적 서비스 횟수 1,100만 회 이상, 주행거리 1억 7천km 돌파 · 전 세계 최초로 L4급 자율주행이 가능한 자사 플랫폼 'ADFM(Apollo Driving Foundation Mode)' 출시 · ADFM 알고리즘과 관련된 특허 수는 5,700여 개로 기술 기반이 탄탄함 · 대량의 교통정보를 학습해 복잡한 도로상황과 기상상황 등에도 반응할 수 있는 시각언어모델(VLM)과 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설립, 광저우에 본사를 둔 자율주행 서비스 기업 · 중국 자율주행 기업 중 최초로 베이징·상하이·광저우·선전 등 4대 도시에서 무인자동차 서비스 허가를 득한 기업 · 핵심 부품의 공급망 구축을 통해 '7세대 로보택시'의 총 생산원가는 전세대 대비 70% 절약됨 · 2025년 3월 기준, 누적 서비스 횟수 90만 회 이상, 로보택시 한 대당 하루 평균 서비스 횟수 15회 이상 · 2025년 5월, 글로벌 차량공유 플랫폼 Uber와 중동지역에서의 첫 서비스 제공 협약을 체결함 · Pony.ai는 6천만 명의 월 이용자를 가진 Uber의 경쟁력을 활용해 세계시장 본격 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설립, 광저우에 본사를 둔 자율주행 서비스 기업 · 중국,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 프랑스, 미국 등 5개 국가에서 자율주행 허가를 득함 · 자체개발한 WeRide One 플랫폼은 L2부터 L4 자율주행까지 서비스 가능 · 데이터 수집-훈련-검증 등 전과정 자동화를 통해 2025년 초까지 실제 도로에서의 누적 테스트 주행거리 1,100만km · 2025년 1분기 로보택시 수입은 1,610만 위안(약 222만 달러)으로 이윤율 35%에 달함 · 2024년 9월, Uber와 아랍 에미리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협약을 체결함
---	---

자료: 광명망(光明网), 중국경제신문(中国经济新闻) 등, KOTRA 선전무역관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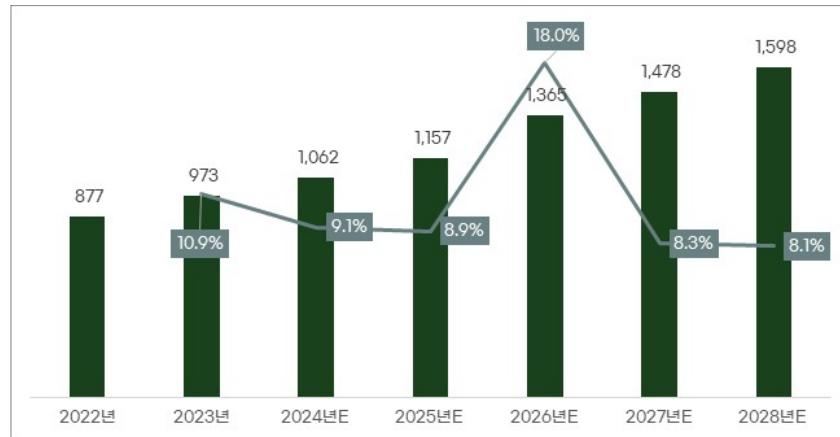
3. AI + 의료

- 중국의 ‘AI+의료’ 분야는 14억 인구를 기반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의료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산업-병원 간 협업 생태계 적극 구축
 -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중국의 수입 의존도가 높았던 의료 영상장비, 진단기기, 병리장비 등을 중심으로 AI 기반의 국산 장비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짐
 - 이는 중국 산업의 전형적 강점인 하드웨어 제조능력이 AI기술과 결합된 특징을 보여줌
 - 다만 △데이터의 질과 표준화 부족 △의료기기 인허가 및 법제도 미비 △수술로봇 등 고급기술 격차 등 한계도 존재
- 2024년 중국의 AI의료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9.1% 증가하면서 1천억 위안(약 137억 7,600만 달러)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¹⁷⁾
 - 2025년 중국 AI의료 시장은 전년대비 8.9% 늘어난 1,157억 위안(약 159억 3,900만 달러)으로 예상
 - 2028년에는 중국의 AI의료 시장규모가 1,500억 위안(약 206억 6,400만 달러)을 돌파할 전망

17) 싱예증권경제및금융연구원(兴业证券经济与金融研究院)

중국의 AI의료 시장규모 추이(2022~2028년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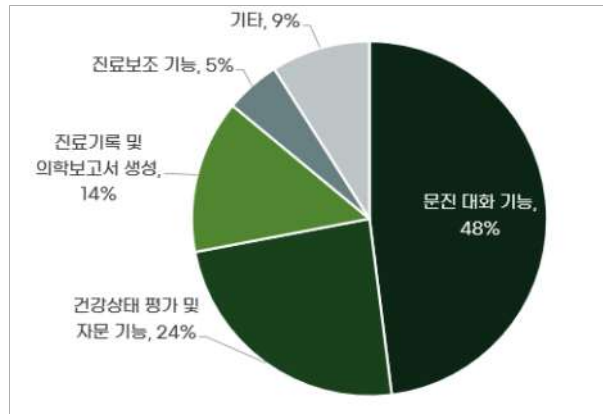
단위: 억 위안, %



자료: 싱예증권경제및금융연구원

- 국제연합(UN)의 기준에 따라 2024년 말 중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5.6%로 중국도 '고령 사회'에 진입
 - 2024년 말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3억 1,03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2% 차지
 - 2024년 중국 의료기관의 환자 진료 횟수는 101억 1천만 회로 전년대비 5억 5천만 회가 증가
 - 특히 도시와 농촌 간 의료 수준 격차가 높아 양질의 의료서비스는 대부분 중국의 대도시나 3급 갑(甲)병원*에 집중
 - 중국의 3급 병원 병상 이용률은 90.9%까지 달하지만, 농촌 의료원의 병상 이용률은 60% 이하
 - 중국의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와 의료수준 평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의료에 대한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음
- * 중국의 병원등급은 1급(농촌 보건소 등), 2급(현급 병원), 3급(지급시·성급 병원)으로 구분하며, 3급 병원은 인력배치, 기술수준 등 종합평가에 따라 특갑, 갑, 을, 병으로 구분
- 중국의 AI의료 시장은 크게 AI 의료기기와 AI기반 의료 소프트웨어로 구분
 - 생성형 AI의 기능 확장으로 AI기반 의료 소프트웨어의 관리감독 및 등록인증 기준이 마련되고 있으나 아직은 보조 기능에 한해서만 승인
 - AI가 취급하는 데이터가 환자의 검사결과 등 비의료기기 데이터라면 별도 인증이 필요 없으나 의학영상 등 의료기기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다룰 경우 의료기기 인증 필요

- 2024년 말 기준 중국에서 대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증된 의료분야 AI 모델 및 알고리즘은 101건임
 - 기능별로 살펴보면, 문진을 위한 대화 기능이 48%로 가장 많고 건강상태 평가 및 자문이 24%, 진료기록 및 의학보고서 생성이 14%를 차지
 - CT, MR 등 의학영상 결과 등을 기반으로 의사의 진단을 보조하는 기능은 5%에 불과
- 중국의 인증된 의료 AI모델 및 알고리즘 기능별 비중(2024년 말 기준)



자료: 알리클라우드

- AI가 의료에 적용되는 분야는 크게 스마트 의료, 바이오의약, 건강관리 등
 - 스마트 의료는 병원이 주체가 돼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진, 진단, 병리분석 등에 AI가 활용
 - 바이오의약은 바이오회사와 의약품제조회사가 주체가 되어 성분분석, 임상실험 설계, 단백질 구조 예측 등에 AI를 활용
 - 건강관리 분야는 개인을 대상으로 AI를 활용해 개인의 건강 데이터를 해석하고 맞춤형 건강계획을 세움



AI+의료 응용 세부 분야


스마트 의료	바이오의약	건강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 예약 및 문진 • 스마트 진료 • 영상의학 분석 • 임상결정 지원 • 수술 보조 시스템 • 유전체학 및 정밀치료 • 스마트 진료차트 및 품질관리 • 의료교육 및 임상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백질 구조 예측 • 표적 인식 및 검증 • 약물 분자 설계 및 최적화 • 고처리량 가상 스크리닝 • ADMET 성질 예측 • 임상실험 설계 • 피실험자 모집계획 최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 관련 문제 질의 • 건강데이터 검색 및 해독 • 건강 리스크 평가 및 예측 • 스마트 신체검사 • 맞춤형 건강 계획 • 스마트 보험심사 및 청구 • 보험 서비스 최적화 • 맞춤형 보험 설계

자료: 알리클라우드, KOTRA 선전무역관 정리

- 중국의 AI의료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으로는 중국의 대표 빅테크 기업인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이 있음
- 빅테크 기업의 클라우드 자회사가 병원, 정부, 연구기관과 협력해 의료 데이터 표준화·수집·관리 플랫폼 구축
- 수집된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진단·보조 시스템을 개발하고 스마트 병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원격진료까지 서비스를 확장

중국 빅테크 기업 BAT의 AI의료 분야 발전 특징 및 핵심 제품

기업	특징	핵심 제품 및 기술
바이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최고의 LLM인 ERNIE(文心一言) 시리즈를 기반으로 의료 데이터에 강함 · 바이두 헬스케어 플랫폼 내에 30만 명의 의사가 등록돼 있으며 2억 1천만 명의 환자를 서비스함 · 800여 개의 병원을 대상으로 AI 서비스 제공 	<p>바이두의 AI의료 솔루션 링이즈후이(灵医智慧)</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DSS(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임상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지원 * 의료진이 진단·치료·약물 처방 등 임상 판단을 내릴 때, AI가 정보를 제공해 판단을 도와주는 시스템 · AI기반 병력 문서 작성 · AI기반 약물 처방 모니터링 시스템 · AI기반 상담 초기 문진 제공
알리바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리바바 헬스(阿里健康), 알리바바 클라우드(阿里云), 다모 아카데미(达摩院) 등 기술 개발부터 의료현장 적용까지 관여 · 다모 아카데미는 2017년 알리바바가 AI, 반도체, 의료기술 등 미래 기술 개발을 위해 설립한 연구소 · 알리바바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AI 영상 판독 시스템인 'Alibaba Cloud Medical Imaging System'을 개발해 2024년 기준 100여개 병원에 도입함 	<p>'다모 아카데미'가 개발한 AI 암 조기진단 모델 '다모 판다(Damo Pand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조영(non-contrast) CT 기반의 AI 암 조기진단 모델로 민감도 92.9%, 특이도 99.9%를 기록하며 방사선 전문의보다 34.1% 높은 감지율 기록 · 2025년 4월, 미국 FDA로부터 혁신 의료 기기 지정 제도인 'Breakthrough Device'로 지정됨 · 이미 중국 Ningbo 병원에서 4만 명 이상의 스크리닝을 진행하고, 그중 6건의 초기 췌장암을 발견하는데 성공함 · Fortune의 'Change the World 2024' 목록에 포함돼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AI 도구로 인정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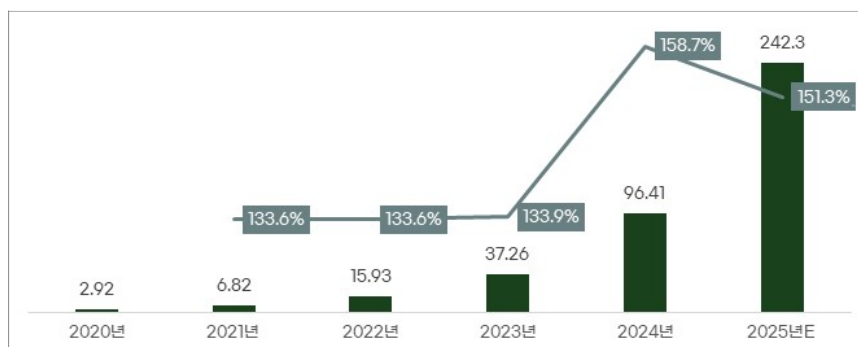
기업	특징	핵심 제품 및 기술
텐센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 내 프로세스를 AI로 최적화하는 '텐센트 스마트병원(腾讯智慧医院)' 플랫폼 보유 · 진료 예약 최적화, AI 접수로봇, 음식 인식에 기반한 문서 자동작성 등 기능 포함 · 텐센트 클라우드(腾讯云)는 누적 3만 8천여 개 의료기관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중 60%는 위챗(微信)을 통해 이뤄짐 · 텐센트가 개발한 AI 기반 신약개발 플랫폼인 'iDrug(云深智药)'을 통해 단백질 구조 예측, 약물-표적 상호작용 모델링 등에 AI를 적용함 	<p>텐센트의 AI의료 영상 플랫폼 '텐센트 미잉(腾讯觅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기반 영상 분석, 병리분석, 진단 리포트 생성, 조기 경고 시스템 등 포괄 · 폐암, 뇌졸중, 안구질환, 대장암, 치매, 심혈관 등 질환별 AI 진단 기능 보유 · 2025년 5월 기준 중국의 500여 개 의료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단에 사용된 횟수는 1천만 회 돌파 · 텐센트 미잉은 텐센트가 개발한 Hunyuan(混元) AI LLM을 동시 활용함으로써 파급력 확대 중

자료: KOTRA 선전무역관 정리

- AI의료기기로는 AI 의학영상기기, AI 보조진단기기, AI 병리진단기기, 의료용 로봇 등이 있음
- 2024년 중국의 AI의료기기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158.7% 폭발적으로 늘어난 96억 4,100만 위안(약 13억 2,800만 달러)
- 2025년에는 1.5배 성장한 242억 3천만 위안(약 33억 3,8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
- 중국의 AI의료기기 시장은 2021년부터 최소 133.3%의 성장률로 매년 빠르게 성장
- 2020년 약 3억 위안에 불과했던 중국의 AI의료기기 시장은 5년 사이 약 33배가 됨

중국의 AI의료기기 시장규모 추이(2020~2025년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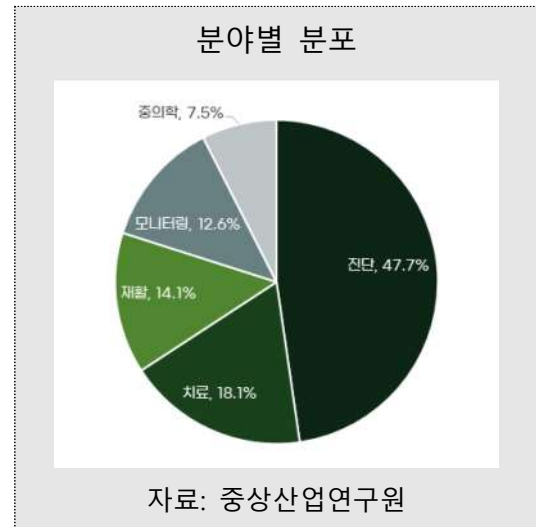
단위: 억 위안, %



자료: 중상산업연구원

중국의 AI의료기기 기업

- 중국의 AI의료기기 기업의 분야별 분포를 보면, 진단보조기기가 47.7%로 가장 많음
 - 뒤를 이어 치료(18.1%), 재활(14.1%), 모니터링(12.6%), 중의학(7.5%) 순으로 구성
 - 중국의 AI의료기기 시장의 주요 기업은 Mindray(邁瑞, 마이루이), Sonoscape(開立, 카이리) 등 AI영상의학 기업, 텐센트 헬스케어(騰訊健康), 링이즈후이(靈醫智慧) 등 AI보조진단기기 기업이 대표적
 - AI기반 헬스케어 로봇을 제조하는 기업으로는 방방로봇(邦邦機器人), 스이 인텔리전스(司羿智能) 등임



중국의 AI의료 산업체인 별 핵심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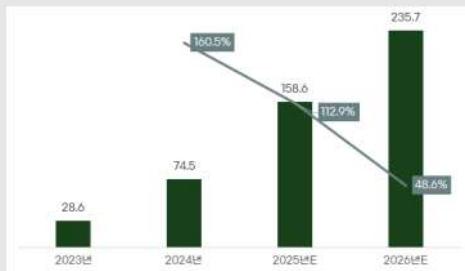


주: 각 기업별 중문·영문명은 51페이지 참고자료에 상세하게 기재돼 있음
자료: 이관분석(易观分析)

- AI 의료기기 중에서도 중국의 AI영상의학 분야의 성장이 빠른 속도로 실현
 - 중국의 AI영상의학 시장은 2025년 전년대비 112.9% 늘어난 158억 6천만 위안(약 21억 8,5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¹⁸⁾
 - 2024년에는 전년대비 160.5% 폭발적으로 늘어난 74억 5천만 위안(약 10억 2,600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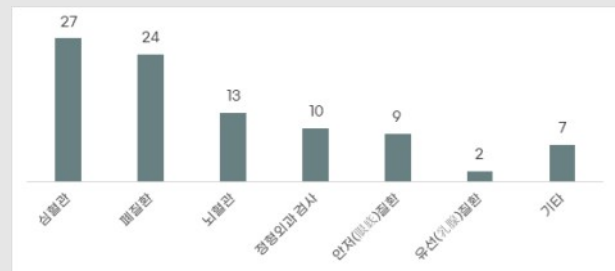
18) 중상산업연구원

중국의 AI영상의학 시장규모 추이
(2023~2026년E)



자료: 중상산업연구원

중국의 허가된 AI영상의학 제품
(2024년 6월 기준)




자료: RimeData

- 2024년 6월 기준, NMPA(중국국가의약품감독관리국) 3류 의료기기 인증을 획득한 중국의 AI영상의학 제품은 92개
 - 적용 분야를 살펴보면 심혈관 분야 제품이 27개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폐 질환 분야 제품이 24개로 두 번째로 많음
- AI수술로봇은 단순히 AI기반의 자동화 수준을 넘어, 인식-판단-예측-보조결정-제어까지 전 단계에서 AI기술을 활용하는 분야
- 2024년 중국의 수술로봇 시장규모는 95억 9천만 위안(약 13억 2,100만 달러)이었으며 2025년에는 110억 3천만 위안(약 15억 2천만 달러)에 달할 전망¹⁹⁾
 -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시장 연평균 성장률은 34.5%로 빠르게 성장 중
 - 특히 TINAVI(天智航, 텐즈항), Medbot(微創机器人, 웨이창로봇) 등 주요 수술로봇 기업은 AI를 적극 활용해 환자별 맞춤형 수술 계획을 구성하거나 영상 기반의 3D 가상수술 시뮬레이션 등을 제공

중국의 AI수술로봇 주요 기업

<p>AI수술로봇</p> <p>TINAVI 天智航</p>	<p>베이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2024년) 1억 7,900만 위안 (전년대비 14.85% 감소) · 2024년 기준 중국의 정형외과 수술로봇 시장점유율 39.8%로 1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척추 수술로봇 시장점유율 49.1%로 1위 - 관절 수술로봇 시장점유율 44.0%로 2위 · 2024년 텐즈항 수술로봇의 수술횟수는 3만 9천 건으로 2023년대비 62.5% 큰 폭 증가 · AI기반 수술 경로 계획, 실시간 추적 기술 등이 탑재돼 수술의 정확도를 제고함
---	------------	--

19) 중상산업연구원

<p>AI수술로봇</p> 	<p>상하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2024년): 2억 5,700만 위안 (전년대비 145.95% 증가) · '투마이로봇(图迈机器人)' 시리즈는 중국 최초의 4-arm 복강경 로봇으로 2025년 2월 NMPA 승인 완료 · 정형외과 수술로봇 외에도 최소침습 내시경, 복강경 등 다양한 수술 분야를 아우르는 로봇 솔루션 기업임 · AI 및 5G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원격 수술 솔루션을 적극 개발 중
---	------------	---

자료: 각 기업 홈페이지 등, KOTRA 선전무역관 정리

- AI의료기기 기업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광둥성, 상하이, 장쑤성 등 3개 지역에 25만 7천 개 사가 집중함
 - 이는 중국 전체 AI의료기기 기업 수의 33.3%를 차지
 - 광둥성에는 최고급 병원과 과학연구기관을 보유해 AI의료기기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고 있음
 - 상하이는 국제적 자원과 첨단인재 풀을 기반으로 United Imaging(聯影智能, 렌잉즈잉), KEYA Medical(科亞醫療, 커야의료) 등 대표기업의 본사와 R&D 센터 밀집

중국 주요 지역별 AI의료기기 발전 현황



자료: 중상산업연구원, KOTRA 선전무역관 정리

III. 중국기업의 AI 협력수요와 우리 기업의 진출방안

<일러두기>

이번 장에서는 선전무역관이 중국의 분야별 AI 기업을 선별해 직접 인터뷰를 진행한 내용을 담았다.
중국기업들로부터 시장 현황 및 제품 경쟁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우리 기업과 협력할 만한 수요를 제시했다.

1. 중국기업의 AI 분야별 협력 수요

- KOTRA 선전무역관은 다수의 AI 분야 바이어와의 인터뷰를 통해 향후 무인화 시대에서 AI의 중요성을 확인
 - 중국 정부의 국산화 자립 기조 등에 따라 당장의 수입수요는 없으나 이는 단순한 구매력 부재가 아님
 - 중국이 제조업, 의료, 자율주행 분야에서 여전히 해외와의 기술격차로 중국 내부 수급이 어려운 분야가 있음
- AI 비전 기술기업 ORBBEC(奥比中光, 아오비중광)은 로봇, 자동화, 물류 등 분야에 적용되는 3D 카메라·라이다 제조에 주력하며 독자적인 연산 칩, 라이다 센서 칩 개발에 성공
 - ORBBEC은 특히 로봇 분야를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 주류 3D 비전 기술 라인업을 갖추
 - ORBBEC은 최근 미용·의료 분야에서 3D 스캔 기술이 큰 잠재력이 있으며, 한국의 스타트업과 협력이 가능하다는 입장

ORBBEC(奥比中光) (중국 서비스 로봇 3D 비전 시장점유율 1위 기업)

설립년도	2013년 (2022년 상장)
본사	선전
주요 분야	3D 비전 카메라, 3D 센서 등
홈페이지	https://www.orbbec.com.cn/
매출액	5억 6,400만 위안(약 7,770만 달러) (전년대비 56.79% 증가) - 분야별 매출 비중: 소비자용 응용설비(48.56%, 3D 비전 센서(38.61%), 공업용 설비(7.37%), 기타(5.46%)
특징	· 2023년 기준 중국 서비스로봇 3D 비전 센서 분야 시장점유율 71%로 1위 · 글로벌 고객사 1천 개사 이상

Q. 회사의 주력 제품 및 기술을 소개해 주세요.

A. 당사는 업계에서 선도적인 AI 비전 및 로봇 비전 기술기업입니다. 주로 다양한 산업에 적용되는 3D 카메라 제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013년 설립 이후 ORBBEC은 3D 비전 인지의 기반이 되는 칩 설계와 개발에 집중해 왔습니다. 현재 당사는 이미 독자적으로 Depth* 엔진 연산 칩, iToF 이미지 센서 칩, dToF 라이다 센서 칩 등 다양한 종류의 칩을 개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당사는 디지털 및 아날로그 칩 전반에 걸친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Depth Camera: 피사체까지의 거리를 픽셀 단위로 측정해 깊이(거리) 정보가 포함된 이미지를 생성하는 카메라로, 일반 2D 카메라가 색상과 밝기 정보만 담는다면, Depth Camera는 ToF(Time of Flight), 구조광(Structured Light) 등 기술을 이용해 각 픽셀의 거리 값을 계산함

* iToF(indirect Time of Flight): 간접 비행시간 방식의 깊이 측정 기술

* dToF(direct Time of Flight): 직접 비행시간 방식의 깊이 측정 기술

Q. 최근 ORBBEC가 눈여겨보는 시장이 있나요?

A. 우선 당사는 로봇 및 자동화, 물류, 공간 지능(AR/XR), 건강·실버산업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도 이러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당사의 3D 비전 기술과 협력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Q. 3D 비전 기술은 많은 부분이 AI기반으로 작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ORBBEC만의 차별화된 기술이 있나요?

A. 있습니다. 당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로봇분야로 예를 들자면, 현재 ORBBEC은 모든 주류 3D 비전 기술 라인업을 갖추고 다양한 응용 시나리오에 맞춘 차별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Gemini 335 모델은 양안 3D 기술을 적용해 한국의 모 서비스 로봇에 탑재돼 있습니다. 해당 솔루션은 AI를 기반으로 자율 위치 인식, 경로 계획, 지능형 장애물 회피, 인간과 로봇 간의 상호작용 등의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물류 운영비를 64.4% 절감하는 효과를 봤습니다.

Q. 건강 및 실버산업도 유망하다고 보는 이유가 있을까요? ORBBEC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A. 고령화 사회 환경 속에서 건강 및 실버산업 역시 ORBBEC이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시장입니다. ORBBEC의 Gemini 335L과 Astra Mini Pro 3D 카메라는 다양한 실버케어 로봇에 탑재됐습니다. 나아가 미용, 의료 분야에서 3D 스캔 기술도 매우 주목받고 있습니다. 불과 2~3년 전만 해도 3D 스캔 시장은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미용, 의료 분야에서 인체와 안면 3D 스캔을 통해 아주 작은 부위까지 정밀 분석이 가능한 기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ORBBEC은 이러한 분야에서 한국의 관련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자율주행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자율주행 기술을 완성시키는 라이다, 카메라, 센서 등 핵심 부품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임
 - KOTRA 선전무역관은 글로벌 자율주행용 라이다 제조기업 A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무인화 시대에서 라이다의 중요성에 관해 확인함
 - 라이다의 핵심은 하드웨어의 경량화와 라이다로 수집된 데이터를 AI를 활용해 해석하는 데 있음
 - 무인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장방향으로, 앞으로는 무인 자율주행뿐 아니라 무인 서빙로봇, 무인 제초기, 자동화 로봇 등 ‘무인’ 산업이 더욱 확대될 것
 - 라이다 외에도 ‘무인 시장’에서 핵심 AI기술을 보유한 우리 기업은 중국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시장진출 가능
- 무인화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로봇’으로 꼽히는 만큼 다양한 로봇 제품에 호환되는 기술을 보유하는 것이 향후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
 - KOTRA 선전무역관이 인터뷰한 ORBBEC, Robosense 등 제조기업 모두 향후 10년간은 로봇 시장 확대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힘
 - 산업용 로봇 및 협동로봇 제조기업 ROKAE(珞石機器人, 뤼스로봇)은 로봇에 장착되는 AI비전 카메라, 집게, 공구, 이동 플랫폼 등 다양한 기업과 협력을 통해 시장을 넓히고 있음
 - 한국의 AI비전 카메라, 로봇용 집게 등 기술·제조기업은 ROKAE 등 중국의 유망 로봇 기업과 협력해 호환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함께 제3 시장진출이 가능함

ROKAE(珞石机器人) (중국 판매량 기준 4위 산업용 로봇 및 협동로봇 제조기업)

설립년도	2015년 (미상장)
본사	산둥성 지닝시(济宁市)
주요 분야	다관절 산업용 로봇, 협동로봇 제조
홈페이지	https://www.rokai.com/cn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8개 국가 및 도시에 지사 보유 · 일본 도쿄, 중국 상하이, 베이징, 선전에 R&D센터 보유 · 2024년 기준 중국 협동로봇 시장점유율 40% · 2024년 로봇 판매량 8천여 대 기록

Q. 간단한 회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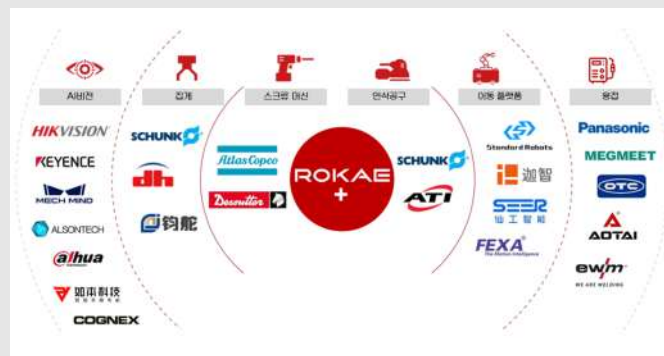
A. 당사는 중국에서 유일하게 산업용 로봇과 협동로봇을 모두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판매량 기준으로는 중국 4위, 전 세계 10위입니다. 당사의 주요 제품라인으로는 ER(연구개발용), CR(산업용), SR(서비스용) 등입니다. 당사는 올해 4월부터 자체 개발한 AI기술이 탑재된 휴머노이드 로봇을 양산하기 시작했습니다.

Q. ROKAE의 강점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요?

A. 산업용 로봇의 경우, 주로 컨트롤 박스가 밖에 있어서 작업 시 공간차지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당사는 컨트롤 박스를 내재화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절별로 여러 센서가 들어가 있는데, 움직임이 매우 섬세하고 부드럽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Q. 주로 어떤 협력 파트너사를 발굴하나요?

A. 아래는 당사 로봇 팔 제품과 호환이 가능한 로봇 부품입니다. 당사 로봇 팔과 호환이 가능한 제품들이며 일부는 개발 초기부터 함께 연구개발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유명한 로봇 제품과 호환이 가능한 AI 기술이라면 향후 시장진입에 매우 유리할 것입니다. 당사도 더 많은 제품이 호환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Q. 한국과도 협력 가능성이 있나요?

A.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는 '양방향 협력 모델'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양방향 협력 모델이란, 당사가 한국의 핵심 로봇 부품 등을 수입한 후 중국에서 제조를 마치고 한국이나 제3국 고객을 같이 유치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당사는 한국의 부품을 사용했으므로 한국 및 제3국 고객 대상으로 제품 마케팅 시 더 유리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2. 우리 기업 진출방안

- 중국은 AI칩 및 하드웨어의 국산화 수요가 높지만, 여전히 기술적 격차가 있어 우리 기업의 시장 진입 기회가 있음
 - 중국은 최근 딥러닝 연산에 최적화돼 있거나 ASIC와 같이 특정 AI작업 전용으로 설계된 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 우리 기업은 한국에서 칩을 설계하고 모듈을 완성해 중국 서버기업에게 납품하는 등 중국 제조사에 B2B 공급 가능
 - 특히 AI칩이 스마트카메라, 보안용 CCTV, AI가전, 무인배송로봇 등 다양하게 활용되므로 기능에 따라 진출 방법을 달리할 수 있음
- 중국이 취약한 산업 특화 LLM 시장 공략
 - 중국은 2023년부터 LLM(대형언어모델) 경쟁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LLM붐'이 일어나면서 바이두의 ERNIE 시리즈, 텐센트의 Hunyuan(混元) 시리즈, 화웨이의 MindSpore AI 플랫폼 등 다양한 LLM 모델 개발
 - 중국의 빅테크는 범용 LLM에 집중하는 편이므로 산업용 특화 모델은 여전히 공백이 큰 시장
 - 한국은 의료, 제조, 교육, 금융 등 산업별 특화된 LLM 모델을 현지화해 공급할 수 있음
 - 또한, LLM 압축 및 경량화 기술, 모델 최적화 기술 등 기술적 우위를 가진 기업도 중국시장을 적극 공략할 수 있음
- 우리 기업이 각 AI 산업별 시장에 진입할 때는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수 있음
 - 단순히 제품이나 기술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 외에 △협력 파트너와 대규모 프로젝트 공동 수주 △중국 협력기업과 공동 기술개발 △제3국 공동 진출 등을 고려
-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시티 등 AI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독자 진출보다는 유력한 현지 파트너를 발굴해 장기적인 협력 진출방안을 모색
 - 글로벌 기업 지멘스(Siemense)가 성공적인 중국시장 진출 사례로 꼽힘
 - 지멘스는 스마트시티·스마트제조 등 대형 프로젝트에 기반 인프라와 AI기반 분석 시스템을 공급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중국 시장을 공략

글로벌 기업 지멘스(Siemense)의 중국 진출 사례

○ 현지 법인 및 제조 거점 확보

- 지멘스는 중국에 진출한 지 150년이 되었으며, 현재 중국에 21개의 R&D센터와 100여 개의 파트너를 보유하고 있음
- 2019년 쑤저우연구원에 MindSphere Application Center를 설립해 스마트시티, 스마트제조, 에너지 분야의 PoC 및 맞춤형 어플리케이션 개발 거점이 됨

○ 현지화된 MindSphere 생태계 구축

- MindSphere는 지멘스가 개발한 클라우드 기반 산업용 IoT 플랫폼으로 기계, 센서, 설비 등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연결해 AI기반으로 실시간 분석, 예측 및 최적화하는 시스템
- 이는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시티, 에너지, 운송물류, 건물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함
- 지멘스는 단순히 플랫폼을 공급하는 것이 아닌 중국 현지기업과 협업해 MindSphere 기반의 현지형 산업 플랫폼을 공동 개발함

지멘스가 설립한 세계 최초의 디지털 네이티브 공장*



주: 건설 단계부터 모든 공정이 디지털 트윈 (실제 사물, 사람, 프로세스를 가상으로 복제해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하는 기술)으로 설계되고 시뮬레이션 되는 스마트 팩토리

자료: 제일재경(第一财经)

- 중국의 하드웨어 기업과 기술개발 단계부터 협력하는 방식으로 시장 진입
 - 중국의 AIoT 영상보안·감시 장비 기업 HikVision(海康威視, 하이캉웨이스)은 Intel의 영상처리 칩셋 및 AI 가속기 등을 활용해 AI CCTV 제품 개발
 - HikVision은 Intel을 핵심 파트너로 선정하고 보안 등 AI기술의 적용을 촉진하기 위해 AI Cloud Summit 출범
 - Intel은 HikVision의 산업 응용 사례를 사용해 비즈니스 영역 확장이 가능해 상호 보완적인 시너지 효과 발생
 - 이처럼 한국기업도 AI칩, 산업인터넷 플랫폼 등을 중국의 하드웨어에 적용하는 기술협력 모델을 고려할 수 있음
- 중국 시장진출을 발판으로 중국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제3국 시장으로 확장할 수 있음
 - 최근 중국의 AI기업은 해외기업과의 협력 성공사례 창출을 통해 해외시장 확대에 적극적

- 2024년, 중국의 자율주행기업 WeRide는 미국의 Uber와 아랍에미리트 수도 아부다비에서 최초의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합의

WeRide – Uber 간 제3국 공동 진출 사례

○ 협력의 핵심

- ① (역할 분담) Weride는 자율주행 기술을 제공하고 Uber는 플랫폼 및 운영을 담당
- ② (규제 완화) 두바이 도로교통국은 2030년까지 자율주행을 모빌리티 자동화 전략의 핵심으로 보고 있으며, Weride-Uber와의 협력을 위해 도로 개방, 데이터 개방 등을 지원
- ③ (상호 보완) Weride는 중국 광저우, 베이징 등 주요 도시에서 상용화돼 1,800일 이상의 안전 운영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Uber는 전세계 70여개 국가와 10,000여개 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월간 사용자 1억 5천만 명에 달하는 플랫폼 영향력을 보유

○ 글로벌 전략으로 확장

- ① 2024년 협력을 시작으로 2025년 4월, Weride-Uber-두바이 도로교통국은 두바이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한 삼자 협약을 체결
- ② 향후 5년 동안 유럽, 중동 및 기타 지역의 15개 도시에 로보택시 서비스를 도입할 것을 약속

○ 협력의 의의

- ① Weride-Uber 간 '기술+플랫폼+정책' 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중동을 넘어 전세계에서 상용화를 위한 초석을 다짐
- ② 중동과 비슷한 자율주행 라이선스 제도나 교통법규를 갖고 있는 국가에게 벤치마크 사례가 될 수 있음

<(좌) Weride-Uber 협약체결 >(우) 아부다비에서 운행 중인 Weride 로보택시>



자료: 환치우망(环球网)

- 제조·의료·자율주행 별로 중국 내 생태계와 의사결정 구조가 다르므로 우리 기업이 접촉할 대상도 분야별로 차별화해야 함
- 제조 분야에서는 AI솔루션, 로봇 등 우리 기업은 EPC기업 또는 시스템통합(SI) 기업을 접촉하는 것이 효과적

- 일부 솔루션 또는 제품만 보유할 경우 단독 납품이 어려우나, EPC기업과 시스템통합기업은 스마트팩토리에 맞는 패키지를 구성해 시장진입에 유리
 - 의료 분야에서는 중국 병원과 협력 중인 AI 스타트업이나 AI 의료 플랫폼 기업을 접촉하거나 의료기기 제조기업을 접촉해 AI 기능 탑재
 -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자체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하는 완성차 제조기업이나 ADAS 등 자율주행 솔루션 개발 기업 접촉
 - 자율주행 차량용 AI칩, 컨트롤러 등은 자동차 Tier-1, Tier-2 부품사 접촉
- 바이어 발굴 방안으로는 △KOTRA 중국지역 무역관을 통한 바이어 접촉, △산업별 현지 유망 전시회 참가를 통한 바이어 발굴, △대표기업이 주관하는 현지 기술 교류회 참가 등임
- 우선, KOTRA는 각 지역의 산업별 협회, 전시회 주최측, 정부 등과 긴밀한 협업관계를 구축하고 있어 적합한 바이어 발굴
 - 두 번째로는, 중국의 산업별 협회는 철저한 회원관리와 기업의 애로사항 수집 역할을 하고 있어 한국기업이나 기술에 대한 수요 발굴
 - 세 번째로는, 현지 EPC기업 혹은 SI기업이 다수 참가하는 스마트 제조, 의료기기, 자동차 전시회에 참가해 직접 바이어와 접촉

중국의 산업별 유력 전시회(2025년)

분야	개최지역	전시회명	개최시기(2025년)
제조	선전	선전 국제 공업 전시회(ITES) 深圳工业展	3.26~3.29
	상하이	상하이 국제 공업자동화 및 로봇 전시회(SIA) 上海国际工业自动化及机器人展览会	7.29~7.31
의료	상하이, 광저우	중국 국제 의료기기 박람회(CMEF) 中国国际医疗器械博览会	(춘계) 4.8~4.11 (추계) 9.26~9.29
	베이징	베이징 국제 의료기기 전시회(CMEH) 北京国际医疗器械展览会	9.17~9.19
자율주행	우한	우한 국제 자율주행 및 스마트콕핏 기술전시회 汉国际自动驾驶与智能座舱技术展览会	10.11~10.13
	선전	선전 국제 스마트커넥티드 자동차 전시회(AWC) 深圳国际智能网联汽车产业展览会	10.28~10.30

- 한국기업이 중국의 AI시장 진입 시에는 기술·가격 경쟁력 외에도 중국의 현지 정책, 제도, 시장 생태계 등으로 인한 리스크를 적극 고려해야 함
 - 중국은 데이터 보안법(數據安全法), 개인정보보호법(个人信息保護法) 등을 통해 자국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므로 현지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처리 방식 필요
 - 중국의 AI시장은 바이두, 알리바바, 화웨이 등 빅테크 기업이 선점하고 있는 시장으로 이들 플랫폼과 API 호환 혹은 연동 가능한 SaaS 형태로 유연한 진입 필요
- AI와 같이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여전히 지식재산권(IP)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파트너십, 라이선싱 협상 등 과정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유의 필요
 - AI알고리즘, 모델 등 AI 기술의 핵심이 되는 분야에서 특허 소송이 자주 발생
 - AI 기술 분야는 전통적인 특허의 개념 외에도 저작권, 데이터 권리 보호, 영업비밀 등 관점에서도 관리 필요

IV. 참고 자료

<일러두기>

참고 자료에서는 본문 22, 28, 37페이지에 있는 산업체인 별 핵심기업 도표를 리스트로 정리
리스트에는 중국 기업만 있으며, 기업의 중문명, 영문명, 본사 소재지를 포함함

1. 중국의 스마트팩토리 산업체인 별 핵심 기업 리스트

대분류	소분류	기업명(중문)	기업명(영문)	본사 소재지
생명주기별	제품 디자인 (소프트웨어)	杭州芯控智能科技	COCTRL	항저우
		北京云庐科技	CloudANSYS	베이징
		中望软件	ZW SOFT	시안
		浪尖设计集团	ARTOP GROUP	선전
	산업 디자인 (소프트웨어)	展湾科技	Zhanwan	상하이
		炽橙科技	CC MR Solution	항저우
	품질관리	博瀚智能	Apulis	선전
		微亿智造	Micro-Intelligence	창저우
		中科迪宏	ihuge	허페이
		深视创新	DeepVision	선전
		硕橙科技	Sucheon Technologies	샤먼
		黑湖科技	Blacklake	상하이
		蕴硕物联	Yunshuo Wulian	상하이
		凌云光	LUSTER	베이징
	영업 및 A/S	美数科技	AdMate	베이징
		泛为科	FancyDigital	베이징
		明略科技	Mininglamp Technology	베이징
		神策数据	Sensors Data	베이징
생산과정별	공장설립 및 운영	甄知科技	ZKNOW	상하이
		格创东智	GETECH	선전
	생산계획	雪浪数制	Xuelang Industrial	우시
		昆仑数据	K2Data	베이징
		华世界网络科技	Huashijie Network Technology	선전
		寄云科技	NeuCloud	베이징
		恒远智能科技	EverGrand	옌타이
		美云智数	Midea Cloud	포산
		华天软件	Hoteams Software	지난
		蘑菇物联	Mogulinker	광저우
		徐工汉云	XCMG information	쉬저우
		安达发	ANDAFA	둥관

대분류	소분류	기업명(중문)	기업명(영문)	본사 소재지
생산과정별	생산작업	泰科盛	TECHSON	선전
		拓斯达科技	TOPSTAR	등관
		大族激光	Han's Laser	선전
		伊之密	YIZUMI	순더
		交控科技	Traffic Control	베이징
		赛美特	Semi-Tech	상하이
		同向集团	Top Direction Group	포산
	창고 및 물류	仙工智能	SEER Robotics	상하이
		海柔创新	HAI Robotics	선전
		鼎捷软件	Digiwin Soft	상하이
		中电金信	GienTech	베이징
		利元亨智能装备	Lyric Robot	후이저우
	설비관리	梅卡曼德	Mech-Mind Robotics	베이징
		亮亮视野	LLVision	베이징
		亮风台	HiAR	상하이
		台达	DELTA	타이베이
		容知日新	RONDS	허페이
	안전관리	研华科技	ADVANTECH	타이베이
		长扬科技	Changyang Tech	베이징
		安科瑞电气	ACREL	상하이
	에너지·탄소관리	富士康工业	FOXCONN	타이베이
공급망 관리	공급망 계획 및 서비스	商越网络科技	Sunyur	베이징
		携客互联科技	Xiekeyun	선전
	공급망 물류 및 결제	顺丰集团	S.F Express	선전
		中拓互联网络科技	Zhong.top	샤먼

2. 중국의 자율주행 산업체인 별 핵심 기업 리스트

대분류	소분류	기업명(중문)	기업명(영문)	본사 소재지
업스트림 (핵심기술)	라이다	禾赛科技	HESAI	상하이
	라이다	速腾聚创	Robosense	선전
	솔루션	豪恩科技	Longhorn	선전
	솔루션	萝卜快跑	Apollo Go	우한
	솔루션	安途	AutoX	선전
미드스트림 (완성차 제조)	부품	宁德时代	CATL	닝더
	부품	江铃汽车	JMC	난창
	부품	拓普集团	TUOPU	닝보
	부품	三花智控	SANHUA	샤오싱
	시스템	芜湖伯特利	BTL	우후

대분류	소분류	기업명(중문)	기업명(영문)	본사 소재지
	완성차	广汽集团	GAC Group	광저우
다운스트림 (운영 및 서비스)	플랫폼	滴滴出行	DiDi Global	베이징
	플랫폼	如祺出行	ON TIME	광저우
	플랫폼	享道出行	SAIC Mobility	상하이
	플랫폼	高德软件	AutoNavi	베이징
	플랫폼	曹操出行	CaoCao	쑤저우
	서비스	蔚来汽车	NIO	상하이
	서비스	国家电网	State Grid	베이징
	보험	中国人寿财险	China Life P&C	베이징

3. 중국의 Si의료 산업체인 별 핵심 기업 리스트

대분류	소분류	기업명(중문)	기업명(영문)	본사 소재지
병원 방문 전	공공위생	腾讯	Tencent	선전
		百度智能云	Baidu AI Cloud	광저우
		医渡云	YIDU Cloud	베이징
	건강검진	美年健康	Health 100	상하이
		爱康	iKang	상하이
		瑞慈体检	RICI Health Checkup	상하이
병원 내 + 병원 방문 이후	AI영상의학	医准智能	Yizhun Medical AI	베이징
		联影智能	United Imaging	상하이
		开立医疗	Sonoscape Medical	선전
		慧影医疗	Huiying Medical	베이징
		深睿医疗	DeepWise	베이징
		赛诺威盛	SinoVision	베이징
		迈瑞	Mindray	선전
		推想医疗科技	Infervision	베이징
		鹰瞳科技	Airdoc	베이징
		祥生医疗	Chison	우시
	AI보조진단 (CDSS)	惠每医疗	Huimei Healthcare	베이징
		森亿医疗	SYNYI AI	상하이
		海森生物医药	Hasten Biopharmaceutical	허페이
		卫宁健康	Winning Health	베이징
		灵医智慧	Mental AI Doctor	베이징
		阿里健康	Alibaba Health	홍콩
		达实智能	Das Intellitech	선전
		腾讯健康	Tencent Healthcare	선전
	정밀 의료	精智未来	ChromX Health	광저우
		慧算基因	Smartquerier Gene	상하이

대분류	소분류	기업명(중문)	기업명(영문)	본사 소재지
병원 내 + 병원 방문 이후		贝瑞基因	Berry Genomics	베이징
		世和基因	Geneseeq	난징
		金橡医学	AcornMed	베이징
		诺辉健康	New Horizon Health	항저우
	의료·회복 로봇	万思医疗	VAS medical	베이징
		歌锐科技	Great Robotics	베이징
		邦邦机器人	Bangbang Robot	상하이
		艾目易科技	Aimooe	광저우
		司羿智能	SIYI Intelligence	상하이
		程天科技	RoboCT Technology	항저우
	AI병리진단	迪安诊断	DIAN Diagnostics	항저우
		兰丁智能医学	Landing Med	우한
		金域医学	KingMed Diagnostics	광저우
		深思考人工智能	iDeepWise	베이징
		医派智能科技	MediPath	항저우
		江丰生物	KFBIO	닝보
		华银康集团	Huayin Health	광저우
		赛维森医疗科技	Cells Vision	광저우
	건강관리	妙医佳健康科技	Miao Health	베이징
		华米科技	Huami	베이징
		方舟健客	Fangzhou inc	광저우
		壹零医	Doctopia	상하이
		北京新净科技	Xinjing Science	베이징
		杉泰健康科技	Shantai Health	상하이
		北京糖护科技	D Nurse	베이징
		惠泽健康	Huize Health	상하이
		希诺神州	Sino Great Ark	상하이
		小鹿中医	Xiaolu	칭하이
		渐健医疗	Jianjian Health	베이징
		智云健康	ClouDr Group	항저우
		安福星	Anfusleep	우한
		米喜网络科技	Medishare	상하이
		壹健康健康产业	ARC Health	광저우
		百度健康	Baidu Health	베이징
	약물 연구개발 및 기초 연구	望石智慧	StoneWise	베이징
		晶泰科技	XtalPi	선전
		费米子科技	Fermion	광저우
		剂泰科技	METiS	항저우
		英飞智药	IIPHARMA	베이징
		宇耀生物	Yuyao Biotech	상하이

대분류	소분류	기업명(중문)	기업명(영문)	본사 소재지
병원 내 + 병원 방문 이후	약물 연구개발 및 기초 연구	角井生物	Base&Byte	베이징
		智化科技	Chemical.AI	우한
		药苑生物	DRUG FARM	상하이
		燧坤智能	Silexon AI	난징
		科因生物	Keyin Biopharmaceutical	상하이
		智睿医药	DM intelligence	광저우
		星药科技	Galixir	베이징
		百图生科	BioMap	베이징
의료 디지털화 솔루션		京东健康	JD Health	홍콩
		熙康健康	Xikang	창사
		嘉和美康	Goodwill	베이징
		思创医惠	Century	항저우
		东华软件	DHC Software	베이징
		创业慧康	B-Soft	항저우
		和仁科技	Heren Health	항저우
		华为技术	Huawei	선전
		国新健康	CRHMS	하이코우

작 성 자

- 선전무역관 이종은

중국 AI 산업과 한국 기업의 기회

Global Market Report 25-046

발 행 일	2025년 10월
발 행 인	강경성
발 행 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주 소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13
전 화	1600-7119
홈 페이지	www.kotra.or.kr
문의처	선전무역관(86-755-8335-9991)

• ISBN: 979-11-402-1417-4 (95320)



